

II.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1. 근대 학문의 수용
2. 한국어 연구
3. 한국사 연구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1. 근대 학문의 수용

1) 서양 근대 학문의 세 수용통로

중국·조선·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서로 인접하는 유교문화권에 속한 나라였지만 근대 학문(서학)의 수용 양상은 세 나라가 서로 달랐고 또 그것이 근대에 서로 다른 길을 결정짓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배후에 있는 각국의 유교문화의 성격을 포함한 사상적 체질의 차이에 의해 규정된 측면이 중요할 것이다.¹⁾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에서는 이미 개국 전부터 실학과 사상가들에 의해 서구사상이 많이 수용되었다.²⁾ 종교적 차원에서는 西敎로 학술적 차원에서는 西學으로 나누어 본다면 서교의 수용에 대한 연구와 서학 중에서도 자연과학이나 서양기술의 수용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의 인문사회과학의 수용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서구학문(新學)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개항 전후 개화사상이 대두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1870년대부터 1910년 정도까지는 아직 근대 교육제도가 뚜렷이 확립되기 전이고 근대적 서양학문의 수용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철학사상과 사회사상, 인간론,

1) 강재언 저·이규수 역, 《서양과 조선》(학고재, 1998), 259~260쪽.

2) 다음과 같은 글들이 참고된다.

이원순, 《조선서학사연구》(일지사, 1986).

이광린, 《한국개화사연구》 개정판(일조각, 1995).

강재언 저·정창열 역, 《한국의 개화사상》(비봉출판사, 1984).

강재언 저·이규수 역, 위의 책.

강재언, 《조선의 서학사》(민음사, 1990).

정치사상 등이 서로 섞여서 수용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수용한 서구 근대 학문의 분야가 분명히 나누어지지 않았고 또 학문분류도 분명하지 않았다.

한국이 서양 학문을 수용하는 과정은 크게 중국과 일본을 매개로 하는 과정과 직접 서양을 접하는 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서양 중에서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76년 강화도조약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이 정식 국교와 무역을 행하는 상대국은 청나라와 일본뿐이고 서양국가들과의 직접적인 왕래는 없었다. 조선 시대의 한국에 알려져 있던 서양지식은 마테오릿치(Matteo Ricci)의 저작을 비롯한 중국주재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쓴 저작뿐이었다. 중국을 경유하여 서양의 지식을 얻는다고 하는 상황은 대개 18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1774년 사절에 동행하여 북경에 간 李承薰은 예수회 선교사와 접촉하여 천문학과 수학을 배우고 세례를 받아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이후 한국 내에서는 신자가 증가하여 이를 탄압하는 정부에 의해서 몇 번의 순교사건이 일어났다.

한편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洋務運動에 관한 저작이 한국에서 읽혀졌다. 역관 吳慶錫은 1853년 이래 북경과 천진을 왕래하며 서양의 부국강병술을 배울 것을 주장하여 아편전쟁 후에 쓰여진 魏源의 《海國圖志》와 세계지리서인 《瀛環志略》, 미국인 선교사가 내고 있던 월간잡지 《中西見聞錄》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러한 서적은 그와 교제가 있었던 실학과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후에 ‘개화파’의 한 원천이 되었다.³⁾ 그리고 당시에는 《朝鮮策略》, 《易言》도 이미 수용되어 읽혀졌으며 《燕巖集》이 개화파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줬다. 개국 이전의 폐쇄적인 사상적 상황 가운데 개화파 형성에 영향을 준 책 중에 사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영환지략》과 《해국도지》일 것이다.⁴⁾

개화사상이 대두되던 1870년대나 1880년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 주요 외국서적은 거의 모두가 중국의 서적이거나 그 당시 중국에 와

3) 개국 전의 서양인식과 서양사상 수용에 대해서는 이원순, 위의 책과 강재언·정창열 역, 위의 책, ‘제3장 조선에 건너온 서양서목—개국 전의 서양인식과 관련하여’ 등이 참고된다.

4) 이광린, 〈‘해국도지’의 한국전래와 그 영향〉(앞의 책).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저술이었다.⁵⁾ 이와 같은 사실은 1890년대나 190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일본서적의 영향이 점차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⁶⁾

《해국도지》같은 책은 이미 崔漢綺나 金正喜 그리고 나중에 朴珪壽 등이 읽게 된다. 서양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과학기술에는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사상에는 종래 유학자들이 배척하던 불교 정도의 수준이라 판단하여 유학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중국을 방문하여 새로운 사상을 체득하게 된 박규수와 姜瑋는 귀국하자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국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역설하였다. 박규수는 兪吉濬에게 위원의 《해국도지》를 주면서 오늘날에는 外洋事, 즉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고 말하자 유길준은 이로부터 분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해국도지》는 위원(1794~1856)이 1844년부터 1852년까지 100권으로 완간한 저작으로 서양의 역사와 지리를 중점적으로 소개한 일종의 세계지리서이다. 그런데 이 책이 동아시아 삼국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청에서는 서양의 기술을 채용하자는 洋務論이 흥기하고 페리의 내습(1853)으로 혼란에 빠진 일본은 결국 개국론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개화파가 출현하는데 한 자극이 되었던 것이다.⁷⁾ 말하자면 《해국도지》는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사회에서 代替經書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⁸⁾

1860년 후반기부터 한국사회에 나타난 신사상은 1881년에 이르러 ‘自強’과 ‘開化’로 표현되게 된다. 자강은 당시 청국에서 유행되던 말이었고 개화는 일본에서 유행되었던 말인데, 함께 한국에 들어온 셈이다. 그러나 점차 자강보다는 개화에 더욱 매력을 느껴 한국사회에서 개화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급진파에서는 자기그룹을 개화당이라 부르고 온건파

5) 이광린, 위의 글, 38~46쪽.

6) 이재선, 《한국개화기 소설연구》(일조각, 1993), 29~33쪽.

7) 이광린, 앞의 책, 2쪽.

8) 최원식, 〈신소설에 나타난 개화의 두 모습〉(《역사비평》 34, 1996), 142쪽.

를 사대당이라 불러 구별하였다.⁹⁾

1880년대 조선에 유입된 중국책과 잡지는 역사, 지리, 자연과학, 정치와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것이었다. 당시 수용된 인문사회과학 쪽의 중국서적으로는 역사지리서적인 《해국도지》·《영환지략》·《地球說略》·《普法戰記》 등과 정치·법률서적인 《朝鮮策略》·《萬國公法》·《興亞會雜事詩續》·《易言》, 신문잡지 종류인 《申報》·《萬國公報》·《中西見聞錄》·《格致彙編》 등이 있었다.¹⁰⁾ 1883년 5월(음력 3월) 경에 《역언》이 복간되고 한글 번역본까지 간행되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1897년이 되어서야 중국에 비로소 소개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미 1880년대에 다윈의 진화론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사회진화론적인 ‘생존투쟁’·‘우생열패’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1880년대에 한국에 유입된 일본서적의 수는 매우 적었고, 그 영향력도 매우 적었다고 한다.¹¹⁾

중국에서도 서양의 기술 뒤에 숨은 서양의 제도와 정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청일전쟁의 패배 뒤였고 그리하여 자강론에서 변법론으로 사상을 바꾸게 된다. 청일전쟁 이후 중국에서 嚴復이 허슬리의 이론을 번역한 《天演論》(1898)과 《群學肄言》(1903), 양계초의 《飲氷室文集》(1903)이 들어와 조선에서 널리 읽혀졌다.

특히 《음빙실문집》의 영향은 대단히 컸다. 梁啓超의 변법자강사상은 서양의 천부인권론, 사회계약론, 사회진화론적 근대사상과 함께 조선 말기의 애국계몽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서양의 근대사상은 물론 단편적으로는 이미 1880년대부터 개화사상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특히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독립신문》 그리고 양계초의 《음빙실문집》 등에 의해 조선의 계몽사상가들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린 감이 있다.¹²⁾ 그러나 1900년대 후

9) 이광린, 〈개화사상의 형성과 그 발전〉(《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 일조각, 1989), 35쪽.

10) 더 자세한 내용은 이광린, 앞의 책(1995), 38~46쪽.

11) 이광린, 《한국개화사연구》, 39쪽.

12) 양계초는 《음빙실문집》(하)에서 루소의 학설을 매우 자세히 소개하고 흄스, 로크, 흄을 그리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자세히 해설하여 소개하였고

반기에 국권회복과 내정변법을 당면의 과제로 하고 있었던 조선의 계몽사상가들의 강한 관심은, 서양의 근대사상 그 자체보다 그 논리를 도입하여 쌓아 올린 양계초의 변법자강사상에 있었던 것 같다.

1876년 일본은 군함을 파견하여 강제적인 합포외교로 조선에게 개항을 강요했다. 오경석은 조선측 전권비서를 맡았지만 일본사절로부터 철도와 전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하여 급속히 서양문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메이지(明治)維新 후의 일본이 새로 조선의 서양문명 도입경로가 된 것이다.¹³⁾ 즉 실학사상을 기반으로 한 선구적인 개화사상이 청말의 중국서적들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면 그 후의 개화사상은 일본서적을 통한 것과 실지로 견문하는 것으로 비롯하여 얻어진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자본주의국가로서, 구미 자본주의제국의 사정을 알기 위해, 또 유신 이래 단기간에 걸쳐 근대적 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알기 위해서 개화와 인사가 일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金玉均 등 개화파의 일본에 대한 대외활동의 길을 틈 사람은 李東仁이었다. 이동인은 처음에는 劉鴻基와 친분이 있어서 그의 소개로 김옥균 등과 사귀게 되었다. 이동인이 東本願寺 부산별원을 통하여 근대화되고 있는 일본에 주목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878년경부터이다. 이렇게 해서 유흥기는 신세계를 볼 수 있는 두 개의 눈을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는 오경석을 매개로 한 청국을 통해서요 다른 하나는 이동인을 매개로 한 일본을 통해서이다.

이동인은 부산에서 입수한 《萬國史記》나 세계 각국의 도시와 군대의 규모를 찍은 사진, 瑤池鏡(萬華鏡) 등을 김옥균 등에게 보여주고 당시 불온서적이던 《만국사기》 등을 동지들 사이에 서로 돌려가며 읽었다. 김옥균과 朴泳孝가 사재를 처분해서 여비를 조달하여 외국사정에 관한 문헌이나 자료를 구

또한 벤담도 언급했다. 또한 그는 블룬칠리(Johann Caspar Bluntschli : 伯倫知理)의 학설이 국가유기체설에 기초를 둔 것이며, 국가유기체설은 루소의 공화정치론과는 대립되는 흐름임을 자세히 해설하여 소개했다. 이 때문에 이미 전제군주제를 혐오하고 공화정을 동경하고 있던 한말의 사상계에는 독일 낭만주의보다 루소, 로크 등의 계몽사상이 더욱 중요한 서구의 정치사상으로 받아들여지고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신용하, 《박은식의 사회사상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2, 59쪽 참조).

13) 上垣外憲一, 《일본유학과 혁명운동》(진흥문화사, 1983), 13쪽.

입하도록 이동인을 일본에 파견한 것은 1879년의 일이며 이는 민간인으로서의 최초의 여행이자 국법을 어기는 일이었다.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최초로 만난 사람이 또한 이동인이다.¹⁴⁾

초기 개화파의 사상형성에는 내재적·외재적 요인이 있으나, 대부분의 논자들에 의하면 외재적 요인 중 일본의 후쿠자와가 미친 사상적 영향을 거론한다.

1876년 개항 후 최초로 일본외교사절이 된 金綺秀가 보고한 《일동기유》에는 “그들의 학문은 경전을 숭상하지 않고 오로지 부국강병을 받들고 있다”, “군사나 종사에 모든 서양의 방법을 쓰고 있다” 등의 내용을 싣고 있다. 1881년에는 신사유람단이 일본으로 떠났다.

유길준은 후쿠자와가 저술하여 일본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던 《서양사정》·《학문의 권장》·《문명론의 개략》 등을 열심히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양사정》·《만국공법》 등은 《서유견문》에 많이 인용되었고 《서유견문》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서양사정》에 나타나고 있음에서 잘 알 수 있다. 심지어는 내용이 거의 전제된 부분도 있다.¹⁵⁾

다른 한편 당시 慶應義塾에서는 미국인이 지은 《The Element of Political Economy》 등의 영어원서를 교재로 영어교습을 하기도 하였고 또한 외국어에 능한 교수들이 스펜서·몽테스키외·토크빌 등 사상가의 책을 소개하는 강의를 하였다고 한다. 유길준은 특히 정치·경제학에 큰 흥미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¹⁶⁾ 또한 그는 후쿠자와의 책 외에도 당시 일본에서 널리 읽혀진 가토(加藤弘之)의 《입헌정체론》·《국체신론》, 나카에 조민(中江兆民: 1847~1901)의 《민약역해》 등의 정치사상 관계 저술도 읽어 보았을 것이다.¹⁷⁾

앞에서 서술한 것들 외에도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친 서구의 책으로는 루

14) 강재언, 《韓國近代史研究》(한울, 1982), 70~71쪽.

강재언·정창렬역, (앞의 책, 1984), 196~197쪽.

15) 김봉열, 《유길준 개화사상의 연구》(경남대 출판부, 1998), 38~39쪽.

《서양사정》이 《서유견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광린, 〈유길준의 개화사상—서유견문을 중심으로〉(《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79) 참조.

16) 이광린, 앞의 글(위의 책), 52쪽.

17) 유영익, 〈갑오경장 이전의 유길준—1894년 친일개혁파로서의 등장배경을 중심으로〉(《한림대논문집》 4, 1986), 75쪽.

소의 《사회계약설》이나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등이 있는데, 개화사상가들은 이러한 저서를 직접 읽지는 않았고 주로 일본 서적을 통해 이러한 사상조류와 만났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러한 사상과 직접 부딪혔던 시기는 189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¹⁸⁾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의 서구사상 수용은 1910년까지는 매우 드물었지만 尹致昊와 俞吉潐·徐載弼 등의 미국 유학생과 朴定陽 등의 ‘親美開化派’를 통해 서구사상 수용이 이루어졌음은 잘 알려져 있다.¹⁹⁾

우리는 서구사상의 수용이 초기에는 서양 선교사들의 한문저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다가 점차로 청말 중국학자들의 저술 혹은 번역서를, 그리고 나아가 일본의 철학서가 중국에서 한역된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일본을 통해 그리고 미국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역사적 맥락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2) 서양철학의 수용

우리 나라에서 서구의 철학사상이 알려지기는 천주학의 전래로부터 시작하였다. 《職方外記》나 《天主實義》 등의 책들 속에는 서양철학에 관계된 것이 가끔 나오므로 단편적이거나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주교를 통해서 전해진 서양철학사상은 주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스콜라철학이었으며 따라서 그 외의 것은 아주 단편적으로 소개되었다.²⁰⁾

18) 신용하, <19세기 한국의 근대 국가형성 문제와 입헌공화국 수립운동>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민족문제》, 문학과 지성사, 1986), 64쪽.

《독립협회회보》 2호(1896. 12. 5)에서는 루소의 사회계약설과 자연법사상,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과 삼권분립설이 소개되고 있다.

19)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이광린, <미국 유학시절의 유길준> (앞의 책, 1995).

——, <서재필의 개화사상> (앞의 책, 1979).

——, <서재필의 사상> (《개화기연구》, 일조각, 1994).

유영렬, 《개화기의 윤치호연구》 (한길사, 1985).

한철호, 《친미개화파연구》 (국학자료원, 1998).

20) 송영배, <‘천주실의’의 내용과 그 의미> (《철학사상》 5,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1995).

허남진 <서구사상의 전래와 실학> (《철학사상》 4, 1994).

금장태·강돈구, <기독교의 전래와 서양철학의 수용> (《철학사상》 4, 1994).

서양철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한말에 이르러서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서양철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우리도 이들을 통해 서양철학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哲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의 니시아마네(西岡)가 서양어 ‘philosophia’를 번역한 용어로서 이 용어가 중국과 한국으로 유입되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서양철학 수용에서 대표적인 몇 사람을 살펴보겠다.

우선 石亭 李定稷(1841~1910)은 조선 말의 유학자로서 베이컨과 칸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²²⁾ 석정은 1868년 북경에 가서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서양학문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倍根學說’(베이컨 학설)은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03년에 간행된 양계초의 《음빙실문집》 가운데 ‘학설’편에 있는 ‘근대문명의 시조 : 베이컨(Bacon, F.), 데카르트(Descartes, R.)의 학설’ 가운데 ‘倍根 實驗派之學說(亦名 格物說)’을 보고 뜻이 중복되거나 긴 말을 삭제하고 일부 첨가하여 양계초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본다.²³⁾

그는 베이컨 이전의 학설은 희랍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범주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못한 채 궤변과 공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베이컨철학이론이 나오면서 비로소 실제철학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파악하여 베이컨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서는 논리학, 중국에서는 辨學으로 번역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독특하게 三句學으로 소개한 것이다. 석정은 삼구법이란 말과 문자로 표현하는 법에 불과한 것으로 진리를 터득해 이를 서술하면 크게 적용될 수 있으나 만일 문자 등을 빌어 진리들의 소재를 고찰하려 한다면 이는 옳지 못한 일로 파악함으로써, 그 나름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소화하고 ‘삼구법’이란 명칭까지 고안해

21) 백중현, 〈서양철학수용과 한국의 철학〉.

강영안,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철학용어의 형성배경〉.

이기상, 〈철학개론서와 교과과정을 통해 본 서양철학의 수용(1900~1960)〉(《철학사상》 5, 1995).

조경란, 〈중국과 일본의 서양철학 수용〉(《철학사상》 4, 1994) 참조.

22) 박종홍, 〈이정직의 ‘칸트’ 연구〉(《박종홍전집》 5권, 민음사, 1998).

이현구, 〈개화기 유학자와 계몽운동가들의 서양철학 수용〉(《철학사상》 4, 1994).

23) 오종일, 〈실학사상의 근대적 전이-석정 이정직의 경우〉(《한국학보》 35, 1984).

낸 것이다. 이정직은 베이컨의 실험, 관찰의 방법을 도입하여 동서철학을 절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칸트철학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그는 칸트의 윤리학과 《실천이성비판》에 주목하고 자유와 인간존엄사상에 공감하였다. 이는 《음빙실문집》에 기록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양계초는 일본철학관에서 석가·공자·소크라테스·칸트를 네 성인으로 받드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칸트를 19세기 학술사의 제일인자로 소개하였는데 이는 일본철학계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²⁴⁾

그러나 이정직의 칸트철학에 대한 소개에는 양계초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즉 양계초가 칸트의 철학을 불교의 화엄사상과 연결지어 설명한 데 비해 이정직은 주자학을 연결지어 설명한 것이 그것이다. 이정직은 칸트의 자유사상에 대하여 천리의 자연에 따르는 것이 진짜 자유이며 이는 유학에서 말하는 本然之性和 같다고 해석하고 또 칸트의 ‘사람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자체로 대하라’는 말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유학에서 仁이 바로 그런 경지와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유학적 입장에서 서양철학을 절충하려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독자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⁵⁾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양계초의 수용입장과 비교한다면 당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⁶⁾

우리 나라에서 서양철학을 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강의를 통해 직접 접

24) 이현구, <개화기 유학자와 계몽운동가들의 서양철학 수용> (《철학사상》 4, 1994), 245쪽.

25) 박종홍, <이정직의 ‘칸트’ 연구> (《박종홍전집》 5권, 민음사), 283~285쪽.

이현구는 이정직의 서양철학에 대한 논의가 양계초의 《음빙실문집》 자료에 근거하여 초록하고 논평한 것이라면 자료성립 시기도 1903년 뒤가 되어 역사적 의미가 적어진다고 평가한다(이현구, 위의 글, 247쪽).

26) 물론 양계초의 경우에도 칸트철학을 소개하면서 인권이나 주권에 대한 근대적 사고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칸트의 자유개념을 양명학의 ‘良知’ 개념과 대비시킨 것은 양계초의 독창적인 생각이기보다 일본철학계의 철학수용 입장과 연관될 것이다(李威周, 《中日哲學思想交流與比較》, 靑島海洋大 出版社, 1991, 209~212쪽).

이현구, 위의 글, 246쪽 참조.

한 최초의 인물은 유길준(1856~1914)이다. 그는 개항 후 최초의 서구유학생으로 일본의 慶應義塾과 미국에서 서양사상과 서양철학을 접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또한 근대 학문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소개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의 각 분야에 관하여 개념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는 농학·의학·산학·정치학·법률학·격물학(물리학)·화학·철학·광물학·식물학·동물학·천문학·지리학·人身學·博古學·언어학·병학·기계학·종교학에 걸친 근대 학문을 종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때까지 오로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규범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던 구학문으로부터 현실의 사회적 실천에 유용한 지식을 추구하는 신학문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사회전체의 과제로서 제시할 수 있었다(윤건차,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청사, 1987, 136쪽).

유길준은 《서유견문》 제13편에서 泰西學術의 내력을 말하면서 도덕학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있으며 窮理學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베이컨이 博洽한 지식과 재조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학업하는 조목’에서 다른 학문과 더불어 철학을 들면서 “此學(철학)은 지혜를 애호하여 이치를 통하기 위함인 고로 그 근본의 심원함과 功用的 廣博함이 界域을 立하여 한정하기 불능하니, 人의 언행과 倫紀며 百千事爲의 動止를 論定한 자라”²⁷⁾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길준이 철학을 ‘功用的 학’이라 하고 ‘百千事爲의 動止를 論定하는’ 학문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일본과 미국에서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이 성행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李寅梓(1870~1929)는 일본의 이노우에(井上圓了)가 저술하고 중국 羅伯雅의 한역으로 된 《哲學要領》과 프랑스의 李奇若(불어원명 미상)저 중국 陳鵬의 한역으로 된 《哲學論綱》 그리고 중국 양계초의 《飲水室文集》에 수록된 여러 학설 등을 참고하여 《希臘古代哲學攷辨》이라는 서양 고대철학사에 관한 저술을 하였다.²⁸⁾ 《희랍고대철학고변》은 고대 그리스철학의 소개와 그의 비판

27)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편, 《유길준전서》 1권 (일조각, 1995), 371쪽.

28) 이인재에 대해서는 박종홍 <이인재론—처음으로 서양고대철학사를 소개 비판한 유학자> (《박종홍전집》 5권, 민음사), 424~434쪽. 이인재가 참고한 책들의 저자와 漢譯者에 대해 박종홍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서적의 내용을 직접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으로 되어있다.²⁹⁾ 이인재에 의하면 철학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철학은 세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는 논리학이고 그 둘은 형이상학이라 하고 그 셋은 윤리학이라 한다. 比龍少飛阿(필로소피아)라는 것은 원래 회랍말로는 叡智에 대한 사랑, 예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번역하여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철학은 삼라만상의 法理를 연구하며 사물의 원리와 존재를 풀이하는 것이다. 과학이란 사물 가운데 하나의 이치만을 연구하는 것이며 그 실용을 찾는 것이라면 백과의 학이 어찌 철학에 기초하지 않겠는가(이인재, 《고대회랍철학고변》, 성곡집, 附哲學攷辨, 한국학문헌연구소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385~386쪽; 강영안,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철학용어의 형성 배경〉, 《철학사상》 5, 33쪽에서 재인용).

이인재는 이어서 哲學史論이라 하여 간단한 개요를 이 책의 처음과 끝부분에 적고 있다.³⁰⁾ 여기서 ‘철학’이란 용어는 물론이고 ‘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 ‘존재’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들 용어들은 19세기 말 일본에서 번역되어 사용되다가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된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張志淵·서재필 등과 같은 계몽운동가들의 서양철학 수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그런데 이들의 경우 그 저작의 특수성 때문에 서양철학 수용에 대한 명료한 경로와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계몽운동가 일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서구사회사상의 유입은 뚜렷하다.

장지연(1864~1921)은 황성신문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신문의 1909년 11월 24일자 논설인 〈철학가의 眼力〉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무릇 철학이란 窮理의 학이니 각종 과학공부의 所不及處를 연구하여 明天理淑人心하는 고등학문이니...우리도 세계의 서적을 박람하며 세계의 학리를 廣求하여...세계철학가의 일부분을 점하면 또한 代의 國光을 발표하는 價格이 有한 줄로 사유하노라

김종석, 〈이인재의 사상과 역사적 의의 : 서양철학 전래 초기 유학계의 동향에 관한 일 고찰〉(영남대 《철학회지》 17).

29)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1912년 이전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이현구, 앞의 글, 249쪽 참조).

30) 더 상세한 내용은 박종홍·이현구의 앞의 글 참조.

장지연은 서양철학을 적극적으로 공부할 것을 권면하고 그 스스로 《萬國事物紀原歷史》를 저술하고 여기에서 “서양철학은 희랍의 탈레스(地利斯)에서 시작하니 피타고라스에 이르러 비로소 철학으로 발전하여, 소크라테스에 이르러 점차 완성되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이룩되었다. 16세기에 영국 철학자 베이컨(Bacon, F., 倂根)이 실험철학을 일으키니 이로부터 고대철학이 바뀌어 근세철학을 이루었고, 같은 영국학자 로크와 스펜서 등이 모두 이 학파에 속하였다. 또 독일에 칸트·피히테·셸링·헤겔 등과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형이상학으로써 각각 주장을 세워 서로 다투었다”고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³¹⁾

서재필(1864~1951)은 한국의 볼테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계몽사상가이자 운동가였다.³²⁾

독립을 이야기 할 때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그런데 만약 사람이 하고자 하는 자유가 행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자유는 일반적으로 선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개인과 사회를 위해 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최대다수에 대한 최대의 옳이라고. 스피노자(Spinoza)가 말하기를,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은 자유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말하기를 ‘자유스러운 사람이란 자기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양자의 주장은 모두 틀린 것은 아니나, 후자는 어떤 경우에 틀렸다고도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은 그 사회, 그 시대, 그 국가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정의를 내릴 때 나타나게 된다(《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7일, 영문판; 이광린, 〈서재필의 사상〉, 《개화기연구》, 110쪽 재인용).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재필이 스피노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유럽 사상가들의 글을 읽었고 또 그 글로부터 영향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용문에

31)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張志淵全書》 권 2, 단국대 출판부, 1979), 237~610쪽에 《만국사물기원역사》가 수록되어 있고 이 책의 118~119쪽(전집으로는 352~353쪽)에 인용한 것과 같이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단 이 인용은 한자식 이름을 대부분 생략했고 현대 우리말로 바꾸었다.

32) 이광린, 〈서재필의 사상〉(앞의 책, 1979), 93쪽.

서 최대다수의 최대 좋은 영국의 공리주의자 벤담의 사상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외에도 서재필은 영어로 18세기 계몽주의사상가 이블테면 로크·루소·몽테스키외의 저서도 읽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저서를 통해 계몽사상 예컨대 합리주의, 자연법사상, 진보의 관념 등을 습득하고, 미국 민주주의사상도 철저히 익혔을 것이다.³³⁾

서재필이 또한 《독립신문》에서 특별히 강조한 문제는 민권, 법치주의, 주권수호 등이었다. 민권이란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고 법치주의란 나라가 나라 다우려면 법으로 다스려야 하고 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권수호란 열강이 호시탐탐 한국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 주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다.³⁴⁾ 서재필의 경우는 서양철학의 수용이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으므로 주로 계몽적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개인 수준에서의 서양철학 수용 외에 가톨릭신학교에서 철학(신학)수업이 있었으며, 1905년에 평양에 숭실학당이 설립되면서 대학부가 설치되었고 여기서 서양인 선교사 번하이젤(Bernheisel : 片夏薛)이 철학과 심리학, 논리학을 강의한 일이 있고 김하정역 《심리학교과서》(1907년, 普成館刊)가 현존해 있다.³⁵⁾

우리는 서구철학의 수용이 초기에는 서양선교사들의 한문저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다가 점차로 청말 중국학자들의 저술 혹은 번역서를 그리고 나아가 일본의 철학서가 중국에서 한역된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일본을 통해 그리고 미국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개화사상이 먼저 중국에서 다음으로 일본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구미로부터 직접 영향을

33) 이광린, <‘해리 힐맨’ 고등학교를 찾아서> (《개화기 연구》), 127쪽.

———, <서재필의 개화사상> (앞의 책, 1979), 138~139쪽.

34) 이광린, <개화사상의 형성과 그 발전> (앞의 책, 1979), 37쪽.

이광린은 서재필의 개화사상의 핵심을 실용적 학문론, 천부인권론, 법치주의론으로 파악한다(이광린, <서재필의 개화사상>, 앞의 책, 1979, 139~147쪽).

35) 조요한, <한국에 있어서의 서양철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 (송전대 철학회, 《思索》 3, 1972).

받았음을 볼 때 철학의 경우는 그 수용과정에서 더욱 완만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진화론의 수용

개화사상에서 진화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³⁶⁾ 사회의 진보에 대한 믿음과 진화적 역사관은 개화사상에서 중심적인 사고를 이루고 있었다. 진화론적 사상은 1870년대 중엽부터 중국과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유입되었으며 19세기 말 이후에 한국사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서구의 사회이론이다. 19세기 말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이 외세의 침략 앞에 너무나 무력함을 드러냈을 때 이 땅의 지식인들은 침몰하는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통해 실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자강운동’을 전개했다.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개화파의 유길준이었다. 그의 일본유학 시절 당시 일본에서는 헉슬리의 《Lectures on Origins of Species》가 伊澤修二에 의해 《生種原始論》(1879년)이란 명칭으로, 다윈의 《The Descent of Man》의 제2판이 神津專三郎에 의해 《人祖論》(1881)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어 널리 읽혀지고 있었으며 또한 동경대학의 모스교수의 강연으로 지식층에 널리 보급되고 있었다. 유길준은 1880년대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 일본의 후쿠자와와 미국의 에드워드 모스의 지도를 통해 사회진화론을 접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했다. 모스는 본래 생물학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동물학자로서 유길준에게 생물학적 진화론과 함께 사회진화론을 가르쳤으나 정치와 경제 등 사회문제와 국가문제에 관심이 더 많았던 유길준은 사회진화론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유길준이 일본에 유학했다가 귀국한 직후에 〈競爭論〉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무릇 인생의 만사가 경쟁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크게는 천하국가의 일로부터 작게는 一身一家의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쟁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능

36)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구한말을 중심으로》(한울, 1996), 104쪽.

히 진보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인생에 경쟁하는 바가 없으면 무엇으로써 그 智德과 행복을 崇進함을 얻을 수 있으며, 국가가 경쟁하는 바가 없으면 무엇으로써 그 光威와 부강을 증진할 수 있으리오(《유길준전서》 4권, 〈정치·경제〉편 일조각, 1995 참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사회진화론을 단순히 한 국가 내부의 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쟁을 인류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유길준을 지도한 후쿠자와로부터 받은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여겨진다. 1880년대 후쿠자와는 당시의 세계를 약육강식, 생존경쟁이 지배한다고 보고 그러한 세계 속에서 강자, 적자가 되어야만 국권을 수호할 수 있으며 당시 일본의 급무를 ‘국체보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후쿠자와가 이 같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적용한 것은 그에 앞선 사회진화론자인 가토(加藤弘之)의 영향이 컸다.³⁷⁾

1880년대 개화파의 개화자강론은 이 같이 일본에서 국가주의, 제국주의론을 뒷받침하는 구실을 하던 사회진화론의 수용 위에서 만들어졌다.

이 시기 사회진화론은 일본을 통해서만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에 유학중이던 윤치호는 1890년대 초에 이 세계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원리는 정의가 아니고 힘이며 ‘힘이 곧 정의’라는 것이 이 세계의 신적 원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서구 문명국이 非西歐를 정복하는 약육강식의 현상을 전 인류의 문명화를 위해 신이 선택한 수단으로 보고 서구의 비서구세계에 대한 침략을 도덕적인 투쟁이라고 보았다. 즉 인류의 역사는 서구의 문명국이 비서구의 야만국을 정복하면서 그 문명을 확대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류사관에 근거하여 ‘서구문명국=강자=도덕적 선, 비서구문명국=약자=도덕적인 악’이라는 독특한 등식을 도출해 내었다.³⁸⁾ 그

37) 박찬승, 〈한말·일제시기 사회진화론의 성격과 영향〉(《역사비평》 32, 1996, 봄), 342쪽.

이 밖에도 김병곤 〈사회진화론의 발생과 전개〉, 윤건차 〈일본의 사회진화론과 그 영향〉, 조정란 〈중국에서 사회진화론 수용과 극복〉을 게재하여 ‘사회진화론 수용의 비교사적 검토’를 개괄적으로 하고 있다.

는 당시의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적자생존의 열국경쟁의 사회로 인식하고 이 같이 힘이 지배하는 냉엄한 사회에서 하나의 민족이 독립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 강자, 즉 적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조선도 스스로 문명화하여 강자가 되지 못하면 타국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하고 조국이 힘을 길러 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윤치호는 미국사회에서 강자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권력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회진화론을 흡수해서 그의 세계관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또한 서구의 비서구사회에 대한 정복의 확대를 그리스도교의 신의 축복으로 칭송하는 ‘행복의 神義論’에 취해 있던 19세기 말의 ‘그리스도적 제국주의’ 형태를 그리스도교의 원리적 본질로서 이해하고 수용했다.³⁹⁾

사회진화론에 기초를 둔 개화자강론은 1890년대 독립협회 시기에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독립협회 지도부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약육강식과 우승열패의 법칙이 지배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 같은 생존경쟁의 때에 애국지사는 반드시 국가를 부흥케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신문》에는 약소국이 되어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자주적인 개화자강을 강조한 글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그 논설 가운데에는 서구 문명 지상주의와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제국주의 지배의 불가피론을 펴는 경우도 많았다. 즉 독립협회 지도부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을 비판하는 시각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선망하면서 개화자강을 통해 제국주의의 대열에 가담하려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⁴⁰⁾

이처럼 1890년대 후반부에 사회진화론적 사고는 신문을 통하여 지식인들과 국민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하여 국제사회에 있어서 힘의 메카니즘을 설명하고 서구적 근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했다.

사회진화론은 한국에서 수용되던 초기부터 몇 가지의 특징을 보이는데 하

38) 양현해, 《윤치호와 김교신—근대조선에 있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기독교》(한울, 1994), 45쪽.

39) 양현해, 위의 책, 54쪽.

40) 박찬승, 앞의 글, 344쪽.

나는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의 관점을 국제사회에만 적용시켜 인종과 국가 간의 갈등과 싸움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국내사회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둘째로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을 통해 강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제국주의의 속성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들을 정당화하게 되었으며 그럼으로써 약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까닭을 약자의 무능 탓으로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⁴¹⁾

사회진화론적 원칙인 ‘생존경쟁’과 ‘우승열패’는 1890년대 말 이후 계몽적인 글에서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과서나 노래에서도 많이 사용될 정도로 대중적인 어휘가 되었으며 다윈의 진화론도 신문과 회보의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⁴²⁾

사회진화론은 90년대 후반 이후 점차 국내에서 확산되게 된다. 이는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의 이른바 ‘보호국’으로 전락한 이후 국권회복운동의 방법으로서 의병투쟁론과 자강운동론이 제기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자강운동론이 강력히 대두했던 데는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사회진화론’의 영향이 컸다. 1905년을 전후한 시기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은 신지식층의 경우에는 주로 일본유학을 통해 사회진화론을 수용했고, 개명유학자의 경우에는 주로 양계초의 《飲水室文集》을 읽음으로써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던 것이다.

사회진화론은 유길준·서재필 등에 의해 우리 나라에 도입되고 특히 1903년부터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이 보급되면서 계몽운동을 일으키는 기본 이론으로 정착되었다.

한국의 계몽운동에서 사회진화론은 국가유기체설과 이론적으로 결합되어 발전되었으며 이 두 이데올로기의 결합은 계몽운동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첫째, 국가는 사회진화론적 싸움, 즉 생존경쟁의 단위로서 강조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적자생존에 의해 발전할 수도 있고 자연적 도태에 의해서 멸망할 수도 있다. 둘째,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일깨우면서 국민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그런데 국가유기체론도 사회진화론이 한

41)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한울, 1996), 133쪽.

42) 전복희, 위의 책, 140쪽 참조.

국에 수용된 과정처럼 일본과 중국을 통해 수용되었다. 특히 블룬칠리의 국가유기체론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일반국법(Allgemeines Staatsrecht)》은 1896년 중국에 와 있던 미국의 선교사 마틴(W. A. P. Martin)에 의해서 《公法會通》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발행되었고 이 중국어판은 같은 해에 한국에서 한국인이 서문을 붙여 발간하여 한국의 외교정책에 이론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1897년 제정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⁴³⁾ 당시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국가유기체론을 블룬칠리의 저서를 직접 읽고 접했다기보다는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을 통해서 또는 일본의 가토의 저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지식인들이 가졌던 국가와 개인 사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파악은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권리신장에 대해 특별히 중점을 두는 경향으로 민권을 국권의 기반으로 보고 국가생존을 위해 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경향이며,⁴⁴⁾ 다른 하나는 민권보다 국권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으로 이것이 당시에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국권에 대한 강조는 당시 조선이 처한 시대적 위기, 즉 패망의 위기로부터 국가를 구출하기 위하여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한 국민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민권의 중요성과 그 신장을 주장하는 민권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국가의 근대화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국계몽운동이 보여주는 이러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⁵⁾

첫째,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상과 가치가 수용 초기부터 부국강병이라는 목적 아래 수용되었다.

둘째, 서로 다른 사상적·역사적 배경을 갖는 서구사상과 가치가 한꺼번에 수용되자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것들의 사회적 맥락이나 사상사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의 한국적인 이해와 필요에 따라 단편적

43) 전복희, 위의 책, 157~158쪽.

44) 警世生, 〈人權은 國權의 基礎〉(《大韓學會月報》4호, 1908), 18쪽.

전복희, 위의 책, 170쪽.

45) 전복희, 위의 책, 183쪽.

이고 선택적으로 수용했다.

셋째, 때때로 서구사상을 유교사상의 이해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일종의 절충주의적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사회진화론과 민권사상이 원형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애국계몽운동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결합 수용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사회진화론이 제기되는 정치적 정세의 문제와 수용 주체의 입장에 따라 사회진화론이 갖는 의미도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진화의 주체를 국가로 봤을 때와 민족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다. 국가의 진화를 생각했을 때는 엉뚱하게도 경부선 철도가 일제에 의해 부설되는 침략상황을 진화로 보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또 국가가 1910년 망했을 때는 진화의 주체가 없어졌으므로 진화론의 근거가 없어졌으니 변질해 가게 된 이론적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된다. 1905년부터 국가의 운명과 더불어 계몽주의자가 점차 변질해 갔던 것은 그것을 말한다. 그러나 진화의 주체를 민족으로 봤을 때는 국가는 망해도 진화의 주체인 민족은 있으니까, 梁起鐸·朴殷植·申采浩처럼 독립운동의 길을 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다.”⁴⁶⁾

그런데 사회진화론의 주체를 국가가 아닌 민족으로 볼 때에도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신채호·박은식 등의 민족주의가 논리적으로 제국주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주체를 이동하면 제국주의란 민족주의가 대외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독립협회와 애국계몽기의 민족주의가 갖는 한계성은 분명 진화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사회진화론적 사고에 기반한 자주독립사상, 부국강병의 자강사상은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논리를 그대로 시인하는 것으로, 침략하는 자보다 침략 당하는 자가 더 어리석다는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던 신채호가 일제하에서 맑스주의를 수용했다가 다시 무정부주의 수용으로 발전해 나간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를 준다.⁴⁷⁾

46) 조동걸, <일제식민지시대 국내 독립운동의 이해와 과제>(《일제식민지시대의 민족운동》, 한길사, 1988), 39쪽.

47) 신용하, <신채호의 사회사상연구>(한길사, 1984) 참조.

4) 사회과학의 수용

개항 이후 사회과학의 수용에 대한 연구들은 개별과학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근대정치학은 그 시작에서부터 대상 없는 정치학이었다. 왜냐하면 근대정치학은 일본을 경유하여 그리고 독일유학생을 매개로 하여 주체적 연구대상이 없이 이루어졌다. 유길준의 《정치학》은 전문적인 정치학 교과서로 기획된 것으로 국가론, 정치사상사 등 다방면에서 정치이론적으로 체계화한 한국 최초의 정치학 저술로 평가될 수 있다.⁴⁸⁾ 근대정치학은 주로 일본을 통해서 수용되었는데 유길준·안국선 등의 정치학은 초기에는 다원주의적 학문의 경향을 볼 수 있으며 1900년 초에 정치학을 전공한 김상연의4 《국가학》(1906)의 경우는 블룬칠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에 수용된 정치학은 국가학이 주류가 된다.⁴⁹⁾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 사회학이 소개된 것은 20세기 초였다. ‘사회’라는 단어는 19세기 말에야 우리 나라에 처음 소개된 번역어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인 文史哲과 달리 사회학은 20세기 들어와서야 우리에게 소개된 대표적인 서양학문이라 할 수 있다. 사회학도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통로를 거쳐 들어왔다. 일본에서 공부한 이인직은 1906년에 월간잡지인 《소년한반도》에 1호부터 5회에 걸쳐서 사회나 사회학의 제목으로 사회 및 사회학의 정의, 사회의 종류, 사회이론의 중요성, 스펜서의 진화론 등을 소개하였다. 일본에서 Sociology를 사회학으로 번역했으므로 이인직도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당시 일본에서는 사회학이 세태학으로도 불렸다고 한다.⁵⁰⁾

한편 사회학이 중국을 통해 ‘群學’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도 1905~1906년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군학’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활자

48) 유길준, 한석태 역주, 《정치학》(경남대 출판부, 1998).

49) 안용준, 《개화기 서구정치학의 도입에 관한 연구》(경남대 박사학위논문, 1998), 208쪽. 서구 정치학의 수용에 관해서는 이 논문과 한석태, 〈개화기 정치학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4, 경남대 사회과학연구소, 1992) 참조.

50) 이기준, 《한말 서구경제학 도입사연구》(일조각, 1985), 238쪽.

화된 것은 1909년에 나온 장지연의 《萬國事物紀原歷史》였다. 장지연은 이 책에서 ‘군학’이라는 새 학문의 역사와 콩트, 스펜서의 사상을 소개하였다.⁵¹⁾ 처음에 이렇게 두 낱말로 우리에게 알려졌던 새 학문은 얼마 가지 않아 ‘사회학’이라는 낱말로 쓰여지게 되었다.⁵²⁾

경제학의 경우, 서구의 체계적인 경제학이 수용되기 이전에 ‘경제학(economics)’이라는 용어가 활자화되어 지식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884년 《한성순보》를 통해서였다. 이기준은 서구 경제학 도입사를 초창기(1881~1893), 중기(1894~1903), 말기(1904~1909)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초창기에는 유길준·권동진·이종일 등이 일본에 유학하여 경제학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이며 중기는 이 기간에 많은 도일유학생이 경제학을 연구하여 몇 권의 저서와 역서를 출간하고 경제학교육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도 계속 경제학에 관한 글을 발표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말기는 상당수의 도일유학생이 경제학을 연구하여 일본의 기관지에 경제학관계의 전문논문을 발표하고 또한 귀국하여 경제학 교육에 종사한 기간이다.⁵³⁾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대적 의미의 법학 즉 서양법학의 수용은 일본과 중국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즉 한국이 서양법사상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일본의 蘭學으로 시작된 명치법 문화와 청말 이른바 양무론의 서적들을 통한 간접 수용으로 시작되었다.⁵⁴⁾ 1895년 최초의 법학교육기관인 ‘법관양성소’가 설립되고 법관양성소의 교과목은 법학통론·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및 기타 현행법률 등이었으며 그 후에 헌법·행정법·국제법·상법 등이 추가되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영미법학서가 소개된 것은 중국에서 번역된 《만국공법》

51) 이준식, 〈일제침략기 개량주의 사회학의 흐름〉(《사회학연구》, 1986), 256~257쪽.

52) 최재석, 〈한국의 초기 사회학: 구한말-해방〉(《한국사회학》 6, 1974).

박영신에 의하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강자 일본의 번역어인 ‘사회학’이 쓰여졌고 학문과 사상의 중심부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옮겨졌다(박영신, 〈한국 사회학의 사회학적 역사〉, 《사회학 이론과 현실인식》, 민영사, 1992, 425~426쪽).

53) 이기준, 앞의 책(1985).

54) 이원순, 〈한국근대문화의 서구적 기초〉(《한국사학》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75~79쪽 참조.

이며⁵⁵⁾ 《만국공법요약》(1909), 《國際公法志》(1909) 등의 국제법에 관한 책으로도 발간되었다. 한국 지식인들이 《만국공법》 중에서 흥미를 가졌던 것은 均勢외에도 ‘자주’의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 ‘주권’이니 ‘자치’니 ‘자주’라는 말은 《만국공법》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었다.⁵⁶⁾

한국에서 서양법사상 수용의 특징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양무론과 일본의 난학에서 출발한 명치법 문화에서 간접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는 서구인문사회과학 수용의 일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서양국가와 접촉하는 정치적, 외교적 강도와 순서에 따라 미국의 영향이 제일 빠르고 컸지만 나중에는 일본 법학서를 통해 독일 법사상이 강하게 정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서양인문사회과학 수용에서 일본의 역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한말의 서양법 수용은 대체로 소극적 보수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서양적 민주주의와 법사상을 독특한 동양적 권위주의와 국가주의로 각색하여 받아들였고 뒤따른 일제하의 일본판 서양법학이 이것을 그대로 계속시켰다는 것이다.⁵⁷⁾

5) 서양 인문사회과학 수용의 특징과 문제점

개항 이후 1910년까지의 서양철학과 사회과학 수용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개국 전야의 서양학문 수용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보다 적극성과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의 유학자들은 ‘서교’와 ‘서학’을 구별하지 않고 한데 몰아 배척하고 말았다. 이에 따른 서학(양학)수용의 시간차가 근대화에서 일본의 성공, 조선의 좌절을 결정지었다”⁵⁸⁾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의 수용통로는 우선은 중국문헌을 통해, 그리고 일본

55)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 수용사》(박영사, 1982), 404쪽.

56) 이광린, 〈한국에 있어서의 ‘만국공법’의 수용과 그 영향〉(《한국개화사의 제문제》), 158쪽.

57) 최종고, 앞의 책, 427~428쪽.

58) 강재연·이규수 역, 〈머리말〉(《서양과 조선 : 그 이문화 격투의 역사》, 학고재, 1998).

문헌의 한역판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직접 일본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졌다. 서구로부터의 직접적인 수용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양학문의 수용과정에서 중국·일본과 비교해 볼 때 번역에 대한 심사숙고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학의 수용과정에서 중국에서 ‘군학’으로 번역하고 일본에서 ‘사회학’으로 번역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해석에 따라 번역한 것에 비해 우리는 “왜 ‘군학’이어야 하며 왜 ‘사회학’이어야 하는가를 그 바탕과 뿌리에 다가가서 묻고 되묻지 않았다”⁵⁹⁾

다음으로 서양인문사회과학 수용에서 서양콤플렉스와 진보콤플렉스는 분리할 수 없게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사회진화론의 수용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개항 이후의 역사를 서구적 가치기준과 현대적 시각으로 이해하여 전통시대와 단절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전통적 학문과 근대적 학문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어렵다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 글은 서양 근대 인문사회과학의 수용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보다 본격적인 연구는 각 학문영역에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보다 포괄적인 인문사회과학 수용사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金載賢〉

2. 한국어 연구

1) 언문일치의 첫걸음

(1) 두 문체의 대립

19세기와 20세기의 교체기는 우리 나라의 새로운 학문이 싹튼 시기였는데,

59) 박영신, 앞의 책, 425쪽.

어느 다른 분야보다도 한국어 연구의 싹이 먼저 텃음을 볼 수 있다. 그 때의 연구는 한글과 문법에 관한 것들이었다.

文字문제는 19세기의 90년대에 들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 이유는 그 때까지 우리 나라에는, 개화기 학자들의 말을 빌면, ‘文二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입으로는 우리말을 하면서 글로는 漢文을 쓰는 기형적인 문자생활을 해 온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개화와 더불어 갑자기 커진 문자의 사회적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言文一致의 이상을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긴급한 시대적 요청으로 등장한 것이다. 문자개혁의 첫 신호탄은 1894년 11월 21일에 공포된 《公文式》에 관한 勅令(14조)이었다.

法律과 勅令은 모두 國文을 기본으로 삼되, 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國漢文을 섞어 쓴다(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漢文과 國漢文을 들어 어정쩡한 것이 되기는 했지만, 국문(한글)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같은 해 12월 12일에 고종이 종묘에 誓告한 글(《獨立誓告文》)이 《官報》에 국문, 한문, 국한문의 세 가지로 실려 있음은 위의 칙령을 따른 것인데, 국문을 맨 앞에 싣고 있음이 눈길을 끈다.

위에 든 국문, 한문, 국한문 중에서 ‘언문이치’의 장본인인 한문은 뒤로 물러날 운명에 처해 있었고 국문과 국한문이 앞으로 누가 새 시대를 담당할 것인가를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어느 것을 택하거나 한글의 체계와 맞춤법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1907년에 國文研究所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글체계와 맞춤법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국어의 音韻에 관한 연구를 이끌어 내었다. 가령 ‘·’자를 그냥 쓸까 없앨까 하는 문제라든가, 받침으로 새로운 글자(ㅅㅏㅓㅕㅗㅛㅜ 등)를 더 쓰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의 해결은 국어의 음운체계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文法은 서양에서 새로 들어온 학문이었다. 한편으로는 영어 문법을 통해서

이 학문이 우리 나라에 소개되었고 다른 편으로는 일본에서 새로 만든 일본어 문법을 통해서 한국어 문법에 대한 생각이 옳게 되었다. 한국어 문법 연구는 19세기의 마지막 10년간에 시작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야 책으로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개화기 이전의 우리 나라에서 언문일치에 가장 가까운 문체를 지적하라면 아마도 대개는 諺文體라고 대답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로 고전소설과 편지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어 일반 서민 사이에 제법 광범한 지반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언문일치의 실현을 가장 강렬하게 추구한 개화기에 있어서 언문체 즉 國文體가 응당 대표적인 문체로 뒹직한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래 매우 미약한 존재였던 國漢文體가 크게 대두하여 국문체와 대립하였고, 마침내 이것이 도리어 대표적인 문체가 되었다.

국문체가 대표적인 문체로 채택되지 못한 원인은 이것이 종래 문자생활의 하층부를 담당해 온 까닭에 갑자기 한문이 맡았던 상층부까지를 담당하기 어려운 결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한문체는 한문에 가까웠으므로 이런 결점이 없었다. 사실상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국한문체는 한문에 토를 단 정도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언문일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나, 점차 한문투가 적어져서 한자는 국어 속에 굳어진 漢字語의 표기에만 국한되기에 이르렀다.

개화기에 있어서의 문체의 대립에는 매우 심각한 일면이 있었다. 가령 1883년에 나온 《漢城旬報》는 순전히 한문을 사용했음에 대하여 1886년에 나온 《漢城周報》가 한문·국한문·국문의 세 문체를 아울러 사용했음은 그 초기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뒤 이 두 문체는 상당한 각축을 벌였다. 신문에서는 일시 국문체가 우세했으나 점차 국한문체가 일반화되어 갔다. 그러나 국문체도 점차 그 기반을 굳히고 넓혀 갔다.

개화기에 있어서 문체의 단일화 작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국한문체와 국문체의 대립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 국한문체

개화기에 있어서 국한문체의 수립과 보급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은 俞吉潐이었다. 그는 1883년 봄에 漢城判尹 朴泳孝의 권유로 신문 간행을 준비하면서 그 創刊辭와 解說文을 국한문으로 썼다고 한다. 이 신문이 간행되지 못한 탓으로 그의 글은 발표되지 못하였으나 개화기에 의식적으로 국한문을 쓴 최초의 시도로서 기억될 만한 일이었다. 위에서 《한성주보》가 한문·국문과 함께 국한문체를 사용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유길준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1886년에 鄭秉夏의 《農政撮要》가 국한문의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는데, 저자는 《한성주보》를 낸 博文局에서 일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의 국한문체는 유길준 및 박문국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 뒤 유길준의 《西遊見聞》이 1889년에 완성되고 1895년에 간행되어 국한문체의 보급에 크게 공헌하였다.

유길준은 이 책의 서문에서 국한문체를 택한 이유로서 ① 말뜻을 평순하게 하여 문자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도 쉽게 알게 하고, ② 스스로 글을 쓰기에 편하고, ③ 우리 나라 七書諺解의 법을 따라 상세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③에 주목한다. 종래 그가 국한문체를 쓴 것은 1881년 일본에 갔을 때 접촉한 후쿠자와(福澤諭吉)의 영향이라고 하는 일설이 있었으나, 위의 ③은 그가 우리 나라 문자생활의 전통 속에서 이 문체를 인식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시작한 국한문체는 1894년 甲午更張으로부터 《官報》을 비롯한 공사문서와 거의 모든 학교 교과서에 쓰이게 되고, 그 뒤 대부분의 신문·잡지에 채택되면서 그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한문체가 대표적인 문체로 확립되어 갔으나, 당시에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생각되고 있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시의 몇몇 신문 논설도 이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만, 李能和는 1905년 학부에 제출한 《國文一定意見書》에서 지금으로서는 국한문체를 사용하는 편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문체만을 사용하는 것은 백년 이후 시대에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의 말을 하였다. 이와 비슷한 견해는 李光洙에 의해서도 표명되었다. 1910년 《皇城新聞》에 실린 〈今日 我韓 用文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純國文인가 國漢文인가” 하면 “순국문으로만 쓰고 싶으며 또 하면 될 줄을 알되 그 심히 곤란할 줄을 알음으로”, 무

엇보다도 “신지식의 수입에 저해가 되겠으므로” 우선 국한문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광수가 당시의 국한문은 “순 한문에 국문으로 懸吐한” 것임을 지적하고 그 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즉 그는 “固有名詞나 한문에서 온 名詞・形容詞・動詞 등 국문으로 쓰지 못할 것만 아직 한문으로 쓰고 그 밖은 모두 국문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개혁은 실제로 1908년에 창간된 잡지 《少年》 등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그 뒤 이광수를 비롯한 문필가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로써 비로소 국한문체가 진정한 언문일치에 접근하게 되었고, 국한문체와 국문체의 차이는 다만 한자어를 한자로 쓰느냐 한글로 쓰느냐의 차이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3) 국문체

國文體는 종래의 언문체의 전통을 이은 것이었지만 단순한 계승에 그치지 않고 현저한 발전과 지위 향상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문체의 지위 향상에 가장 공이 큰 것으로 기독교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개화기 이전에 있어서 언문이 불교에 의해서 많이 보급되어 왔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는데, 기독교는 국문체로 성경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번역하여 적극적인 선교에 힘썼던 것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민간지로 건양 원년(1896) 4월 7일에 간행된 《독립신문》이 국문체를 채택한 것도 기독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창간호 논설에 “모두 언문으로 쓰기는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요 또 귀절을 떼어 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빈칸 띄어쓰기를 한 것은 놀라운 선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이 신문을 창간하였고 줄곧 그 논설을 쓴 徐載弼의 생각이었다. 이보다 앞서 圈點 띄어쓰기를 한 예는 더러 있었으나 빈칸 띄어쓰기는 《독립신문》이 처음이었다. 서재필은 국어학자는 아니었지만 미국에서 학문을 닦으면서 우리 나라 문자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독립신문》 간행에 즈음하여 그의 개혁안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국문에 관한 서재필의 생각은 그 창간호 논설에 분명

히 나타나 있거니와, 《독립신문》 2권 92호(1897년 6월 10일)에 실린 그의 논설에서 더욱 분명하게 표명되었다. 이 논설에서 말과 글은 같아야 하는데 이는 국문으로만 달성될 수 있으며 국문의 표준화를 위하여 ‘옥편’ 즉 사전을 만들어야 함을 말하고 빈칸 띄어쓰기를 다시 한번 역설하였다. 이것은 언문일치의 이상을 천명하고 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주장한 첫 글로서 길이 기억될 역사적 문장이다.¹⁾

《독립신문》에 이어 《미일신문》, 《태국신문》 등이 국문체로 발간되어 한 때는 신문의 문체가 국문체로 굳어지는 느낌조차 있었다. 그러나 본래 국문체로 발간된 《대한황성신문》이 광무 2년(1898) 《皇城新聞》으로 改題하고 국한문체를 택하게 되면서 신문에 국한문체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지식층의 요구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 뒤에도 가령 《大韓每日申報》가 국한문체로 내면서 따로 《國文報》를 낸 것은 일반 민중을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국문체는 신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고전문학을 보면 시가에서는 국한문이 주류를 이루어 왔고 소설에서는 국문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 전통이 개화기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졌으나, 부분적이기는 했으나 소설에 국한문이 등장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면, 최초의 신소설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李人植의 《血의 淚》는 국한문으로 《萬歲報》(1906)에 연재되었다(다만 한자에는 한글로 음을 달았다). 우리 나라의 현대소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20년대 초에도 국한문으로 쓰인 작품이 많이 있었음을 생각할 때, 이 경향도 제법 줄기찬 일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차츰 국문으로 통일되어 고전문학 이래의 전통이 지켜진 것이다.

개화기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국문체의 확립을 위하여 힘을 기울인 학자는 周時經이었다. 그는 1898년에 《國語文法》의 초고를 국한문체로 썼었다고 하니(1910년에 이 책을 낼 때에는 국문체로 고쳤으나 미처 못 고친 곳이 더러 있었다), 그의 국문체에 대한 신념은 그 뒤에 생긴 것이라고 해야겠다. 그의 최초의 저서인 《國文講義》(속 제목은 《대한국어문법》)는 1906년에 간행되었는데 그 〈略例〉는 한

1) 자세한 것은 李基文, 〈독립신문과 한글 문화〉(《周時經學報》 4, 1989) 참고.

문으로, 발문은 국한문체로, 본문은 국문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07년에 그가 《西友》2호에 기고한 〈국어와 국문의 필요〉란 글은 국문체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용도 이의 확립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 보아 주시경이 국문체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게 된 것은 대체로 1907년경이 아니었던가 한다. 1914년에 간행된 《말의 소리》는 그의 마지막 저술로서 그 자신이 써서 석판으로 인쇄하였는데, 잘 다듬어진 순수한 국문체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는 국문체에 만족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가로쓰기’를 꿈꾸고 있었다. 이 책의 맨 끝 페이지에 ‘가로쓰기’를 한 것이 있으며 더구나 그 내용은 ‘가로쓰기’가 글의 이상임을 명언하고 있다. ‘가로쓰기’에 대한 그의 시안은 이미 1909년에 국문연구소에 제출한 그의 최종 〈研究案〉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주시경은 문자문제에 있어서 매우 급진적인 이상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다.

2) 초기의 국문 연구

(1) 지석영의 〈국문론〉과 〈신정국문〉

池錫永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牛痘를 실시한 의학자로 널리 알려졌다. 나 일찍부터 국문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896년 11월에 〈국문론〉을 발표했는데,²⁾ 이것은 이 방면의 최초의 글이었다. 특히 이 글 첫머리에서 “우리 나라 사람은 말을 하되 분명히 기록할 수 없고 국문이 있으되 전일하게 하지 못하여” 이것을 개선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국문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음의 고저를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이 주장은 그의 〈大韓國文說〉(1905)에 이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국문체계의 통일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소청한 것이 재가되어 1905년 7월 19일에 공포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新訂國文〉이었다. 이 〈신정국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ㄱ. 五音象形辨

2) 《대조선독립협회보》 1권 1호, 1896년 11월.

국문 初聲字들의 制字原理를 발음기관의 상형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池錫永의 독창적인 학설이 아니요,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이며 姜瑋의 《擬定國文字母分解》(1869)에도 이런 설명이 보인다.

ㄴ. 初中終三聲辨

崔世珍의 《訓蒙字會》 범례의 체계에 의거한 것이다. 다만 ‘中聲獨用十一字’ 속에 그가 새로 만든 ‘=’자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자는 제외되었다. 한편 《訓蒙字會》의 ‘初聲獨用八字’에서 ‘△ ㅅ’을 빼어 ‘初聲獨用六字’(스츠키트표ᄒᆞᆫ)로 하였다.

ㄷ. 合字辨

이것도 《訓蒙字會》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훈몽자회》에서는 ‘각’자를 예로 들었는데, 여기서는 ‘강’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 다를 뿐이다.

ㄹ. 高低辨

上聲과 去聲 및 長音에 대해서 글자 오른쪽에 점을 찍도록 규정한 것이다. 《小學諺解》의 범례에서 암시를 받은 것인데, 이미 우리 나라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東’과 ‘動’의 聲調의 차이를 표시하려 한 것은 지나친 일이었으나, ‘눈[雪]과 ‘눈[眼]의 차이를 구별하려 한 것은 좋은 착안이었다.

ㄱ. 疊音刪正辨

‘·’를 없앴으로써 당연히 ‘ㄱ느드…’ 등 14자가 없어짐을 확인한 것이다.

ㄴ. 重聲釐正辨

된소리의 표기를 관습대로 ‘시 ㅅ ㅅㅅ ㅅㅅ’와 같이 된시옷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개화기에는 일반적으로 된소리는 ‘ㄱ ㄷ ㅁ ㅅ ㅈ’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했는데(姜瑋·李鳳雲·周時經) 池錫永은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

이상의 간단한 요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정국문>은 국문체계의 개혁안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것이었다. 반침으로 8자만을 사용할 것과 된소리 표기에 된시옷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개혁이라고 한다면 ‘·’를 없애고 ‘=’를 새로 만든 것뿐이다. 이것은 ‘·’는 ‘ㅣ ㅡ’의 습음이라는 주시경의 주장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를 없앤 것은 주시경의 뜻과 같지만 ‘ㅣ ㅡ’ 합음을 나타내는 ‘=’를 새로 만든 것은

그의 뜻과 어긋난 것이었다. 말하자면 〈신정국문〉은 정작 개혁해야 할 것은 아니하고, 엉뚱하게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당시의 식자들 사이에 큰 물의를 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이 〈신정국문〉은 개화기에 있어서 국문체계의 재확립을 위한 최초의 공적 노력으로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그 시행을 위한 노력도 상당히 있었던 흔적이 엿보이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새로 만든 ‘=’자가 큰 불씨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체계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힘을 합하여 새로운 국문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신정국문〉이 가져온 뜻밖의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부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된 것은 이 〈신정국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2) 리(이)봉운의 《국문정리》(국문정리)³⁾

이것은 알파한 팜플렛인데, 그 끝머리에 “대조선 건양 이년 일월 일”이라 있어 1897년 1월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주로 국문에 대하여, 특히 음절의 장단을 구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ㅏ, ㅑ’ 등은 장음 표기에 쓰고 ‘·, …’ 등은 단음 표기에 쓰자는 일종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李鳳雲은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음절의 장단에 대한 관심도 이 경험에서 생긴 것으로 짐작된다. 이봉운이 한 국어에 장단이 있음을 말한 것은 옳았지만, 그가 제안한 표기법은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이 책의 주장은 학계에서 잊혀지고 말았다.

(3) 주시경의 〈국문론〉과 그 뒤의 연구

주시경의 〈국문론〉은 1897년에 《독립신문》에 실린 것으로, 그는 그 당시 培材學堂 學員(학생)으로 이 신문사의 ‘會計兼校補員’의 일을 보고 있었다. 전후 2차에 걸쳐 실려 있어 사실상 두 개의 논설이라고 할 수 있다.⁴⁾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金敏洙, 《新國語學史》(一潮閣, 1964), 359~363쪽 참고.

4) 《독립신문》 2권 47·48호, 1897년 4월 22·24일, 2권 114·115호, 1897년 9월 25·28일.

이 글은 22세의 청년이 쓴 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것이다. 전편에는 오늘날 읽어 보아도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당당한 문자론이 전개되어 있고 후편에는 그가 생각하고 있던 맞춤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편이 실린 뒤에 서재필의 국문에 관한 논설이 발표되어 후편은 그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 있다. 이 후편의 내용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령 ‘강’(江)이나 ‘산’(山)과 같이 이미 우리말이 된 것은 국문으로 써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한자의 음을 국문으로 써 놓으면 한자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아는 사람도 그 뜻을 알아 맞히기 어려움을 지적한 점이다. 당시의 이른바 國漢文混用體가 한문에 국문으로 토를 단 것이었고 국문체란 것도 이것을 그대로 국문으로만 옮겨 놓은 것이 많았음을 비판한 것이다. 이것은 언문일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그리고 명사 또는 대명사의 예를 들어 이들과 조사를 구별하여 표기할 것을 주장한 점도 주목된다. ‘이거시’라 쓰는 것은 문법을 모르기 때문이요 마땅히 ‘이것이’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 (1) ‘·’의 ‘丨―’ 함음설과 (2) 새로운 받침설(‘ㄷ ㅌ ㅊ ㅌ ㅈ ㅊ ㅌ ㅈ ㅊ ㅌ ㅈ ㅊ’ 등의 받침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이 의아스럽게 느껴진다. 오늘날 남아 있는 주시경의 가장 이른 저술인 《대한국어 문법》(1906)에 보면 그가 ‘·’의 ‘丨―’ 함음임을 처음 깨달은 것은 1893년이었으며 새로운 받침에 관한 주장은 그가 1896년 5월에 독립신문사 안에 조직한 國文同式會에서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사실상 주시경이 전 생애를 통하여 주장한 가장 중요한 학설이었고 특히 새로운 받침설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는데, 뒷날 그가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가장 힘주어 주장한 것도 이 두 가지였다.

(4) 이능화의 〈국문일정의견〉

이것은 당시 法語學校 교관이었던 李能和가 광무 10년(1906) 5월에 학부에 제출한 하나의 건의서로서, 어문정리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 구

李基文編, 《周時經全集》 상(亞細亞文化社, 1976) 소수. 필자의 이름은 ‘주상호’인데 周時經의 처음 이름은 周相鎬였다.

체적 방안으로 ‘國文字典’(국어사전)의 편찬, ‘國語規範’(주로 文字체계의 통일안)의 저술 및 소학교과서의 한자 옆에 국문을 달아 쓸 것 등을 말하고 있다. 학부가 국문연구소를 설치한 것이 이 건의서가 제정된 바로 이듬해였음은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능화 자신이 후일 국문연구소의 설치에 이 건의서의 작용이 있었음을 술회하고 있다.

3) 국문연구소의 업적

(1) 국문연구소에 관한 자료

국문연구소는 학부대신 李載崐의 청의로 각의를 거쳐 1907년 7월 8일에 학부 안에 설치되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正音廳(諺文廳)을 제외한다면, 이것은 국문을 연구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적 기관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나라 문화사상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만드시 국가적 기관이라야 중대성을 띠는 것은 물론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교체기에 국어 국문에 대한 자각이 싹트고 이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국문의 연구를 위해서 협동적인 노력을 이룩했던 최초의 기관이라는 데 일차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 뒤 일본제국주의의 압박 밑에서 조선어학회와 같은 민간학회가 조직되어 국어·국문의 통일 사업을 완수했는데, 이것이 국문연구소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것임을 생각할 때 국문연구소의 역사적 의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리하여 국문연구소는 일찍부터 국어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이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말을 지었는지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었다. 국문연구소에 관해서는 일인학자 오쿠라(小倉進平)가 그의 《朝鮮語學史》(1920)에 간단하게 써 놓은 것이 있을 뿐이어서 우리 나라 학자들도 이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국문연구소의 직접적인 자료로는 金允經이 《朝鮮文字及語學史》(1938)에 실은 〈研究案〉(油印)의 일부가 알려졌을 뿐이었다.

앞으로 이 글에서 밝혀지겠지만, 국문연구소는 그 토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연

구안》을 제출하면 그것을 등사하여 나누어 주었고(처음에는 위원들이 다시 〈參互研究案〉을 내어 이것도 등사하여 나누어 주었다) 마지막에는 국문연구소의 사업을 마무리짓는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이 보고서는 각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의 결과를 종합하여 〈의정안〉을 작성하고 여기에 각 위원의 최종적인 〈연구안〉을 첨부한 것이었다.

불과 90여 년 전의 일임에도 이런 자료들의 행방이 묘연했었는데, 이 자료들이 모두 보존된 것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위에 말한 토의과정의 자료는 당시 국문연구소 위원이었던 주시경이 간수했던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발견되었고(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文庫), 報告書 一件 書類는 일본에서 발견되었다(東京大學 小倉文庫). 이로써 국문연구소에 관한 모든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 것이다.⁵⁾

(2) 개설의 동기와 목적

국문연구소가 개설된 1907년은 매우 다사다난한 해였다. 이보다 2년 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었고, 국문연구소가 설치된 바로 그 달에 헤이그(海牙)密使事件이 있었고, 뒤이어 고종양위의 詔書가 내리고 순종이 즉위하였다. 그 다음 달에는 군대 해산식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온 나라 안이 술렁대고 있었던 때다. 이런 때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된 것은 당시의 학계에 문자 문제에 관한 관심이 매우 컸으며, 정부 당국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문연구소야말로 우리 나라 개화기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운동의 가장 빛나는 성과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문연구소 개설의 동기는, 크게 보면 개화과정에서 제기된 문자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화의 초기부터 학자, 언론인 등이 기울여 온 노력의 집적으로, 공동연구에 의한 국가적인 통일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분명해진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사건이 그렇듯이 국문연구소의 개설도 직접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기는 앞에서 이

5) 國文研究所에 대한 자세한 것은 李基文, 《開化期の 國文研究》(1970) 참조.

미 말한 〈신정국문〉과 〈國文一定意見〉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정국문〉은 하나의 국문체계의 개혁안으로서는 여러 가지 결점을 지니고 있었으니, 비록 지석영이 당시에 상당히 유력한 인사였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의 안을 정부가 그대로 공포했다는 것은 졸렬한 처사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밝히려고 하지만, 국문연구소에서 행한 연구제목들을 보면, 〈신정국문〉의 내용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라는 강한 인상을 준다.

당시 학부 편집국장으로서는 사실상 국문연구소 개설 초기부터 주동적인 원인으로 활약한 魚允迪은 국문연구소에 낸 그의 최종 〈研究案〉에서 다음과 같이 국문연구소의 개설을 설명하고 있는데,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문은 오랫동안 한문에 눌러 왔으나 ‘甲午維新’으로 공사문서에 통용되게 되고 비로소 국문이 귀함을 알게 되어 이를 연구할 필요를 다투어 말하게 되며, 이능화·주시경·지석영 등이 나왔고, 이로 말미암아 국문의 빛이 다시 밝아지게 되었으나 여러 학자의 학설이 각기 달라 그 폐해가 크니 그것을 통일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학부에서 국문연구소를 설치한 이유라 하겠다.

국문연구소를 세운 목적이 국문의 연구 및 정리에 있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國文’이란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우리는 위에서조차 주 썼지만 이것은 우리 나라의 문자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말, 즉 국어는 국문연구소의 연구대상에서 일단 제외되어 있었던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문연구소의 목적은 ‘國文研究所 規則’ 제1조에 “本所에서는 國文의 원리와 연혁과 현재 行用과 장래 발전 등의 방법을 연구함”이라고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다.

(3) 직원과 운영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문연구소는 개설(1907년 7월 8일) 며칠 뒤(7월 12일)에 직원들을 임명하였다. 위원장에 尹致昨(학부 학무국장), 위원에 張憲植(학부 편집국장), 李能和(관립한성범어학교장), 玄鑾(정3품), 權輔相(내부 서기관), 周時經, 上村正己(학부 사무관)의 6인, 간사에 柳基泳(학부 視學官), 서기에

白萬奭(학부 주사)이 각각 임명되었다. 그 뒤 8월 19일에 학부 편집국장이 갈리어 장헌식이 해임되고 어윤적이 임명되었다. 위의 위원 중 주시경만은 민간인으로서 아무 관직도 없었으니 그가 위원에 임명된 것은 순전히 그의 학자로서의 명망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인 우에무라(上村正己)가 끼어 있는데, 이 무렵에는 이미 우리 나라 정치를 감시하기 위하여 정부 각 기관에 일본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니, 국문연구소와 같은 민족주의적인 문화기구에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겠다. 이 일본인은 실제로 한 번도 연구안을 낸 일이 없다.

국문연구소가 그 최초의 회의를 가진 것은 그 해 9월 16일이었다. 이 회의에서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토의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중에서도 위원의 補選과 ‘국문연구소 규칙’의 작성이 논의된 것 같다. 그 결과 9월 23일자로 李鍾一(정3품), 李億(정3품), 尹敦求(6품), 宋綺用(전 교관), 柳苾根(9품)의 5인이 새로 위원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위원 속에 정작 지식영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지식영이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1908년 1월이었다. 짐작컨대 국문연구소가 주로 그의 <신정국문>을 검토하게 될 것이므로 그를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가 뒤에 그를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뒤에도 직원의 이동이 있었는데, 1908년 5월에 간사가 된 李敏應(학부 서기관)이 6월에 위원을 겸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이억이, 1909년 10월에 현은·이종일·유필근 등이 해임되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별로 열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위원장 尹致昨 외에 위원은 魚允迪·李能和·權輔相·周時經·尹敦求·宋綺用·池錫永·李敏應의 8인이었다.

비록 큰 시대적 사명을 띤 기관이긴 했으나, 처음부터 그 규모가 적었으며 그나마 운영이 순탄치 못했었다. 직원도 위원을 빼고는 모두 학부 사람으로 겸직하게 했으며 비용도 학부에서 임시로 내기로 되어 있었다.

국문연구소의 운영은 처음 두 번의 회의에서 정한 ‘국문연구소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이에 의하면 회의는 매달 3회 열기로 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문제를 제출한다. 각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안을 제출한다. 이것을 등사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하면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시 자기의 연구안(參互研究案)을 제출한다. 이 참호연구안에 위원장이 評定案을 첨부한다. 이것을 전체회의에서 토론하여 출석 3분의 2 이상의 贊票로 의결한다.

이 방법은 실제로 제1회 문제에 대해서 적용되었으나 너무 번거로워 다소 간소하게 개정되었다. 회의를 매달 2회만 열기로 하고 위원들의 연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3인이 의안을 작성하여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여 다수표로 의결하기로 하였다. 요컨대 회의의 횟수를 줄이고 진도를 빠르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4) 사업의 경과

국문연구소는 1907년 9월 16일에 제1회 회의를 연 뒤로 그 해에 5회, 이듬해에 12회, 다시 그 이듬해에 6회, 도합 23회의 회의를 열었는데 최종회의는 1909년 12월 27일이었다. ‘국문연구소 규칙’대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위원장이 문제를 제출한 것은 모두 10회 14문제였다. 이제 그 제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회 國文의 淵源

제2회 國文 字體 및 發音의 沿革

제3회 ㅇ ㅁ △ ◇ 四字의 復用 當否

제4회 ㅎ, ㅁ, ㅂ, ㅅ, ㅈ 五字의 復用 當否

제5회 ㄱ ㄷ ㄴ ㄹ ㅅ 重音(古稱 並書 俗稱 된시옷) 書法 一定

제6회 中聲에 ㄴ字 捌製 ㄴ의 廢止 當否

제7회 ㄷ, ㄴ 二字 用法

제8회 初終聲 ㅅ, ㅈ, ㅋ, ㅌ, ㅍ, ㅎ 通用 當否

제9회 七音과 清濁의 區別 如何

제10회 四聲票의 用否

字順 行順의 次序 一定

國語音의 高低音

綴字法

字母 音讀 一定

마지막 제10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1회에 1문제씩으로 되어 있다. 국문연구소는 위의 14문제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사실상 1908년 말까지 끝냈었다. 그리하여 일단 학부대신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1909년에 들어 〈國文研究 議定案〉과 마지막까지 남은 8위원의 최종적인 〈연구안〉으로 이루어진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때에는 과거에 토의된 문제들을 10제로 요약한 점이 주목된다(이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밝혀지겠기에 여기서는 약한다). 이것이 완성된 것이 1909년 12월 27일이요 그 이튿날 즉 28일자로 〈보고서〉를 학부대신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정부는 그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문연구소 위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3년 동안 애써 만든 〈국문연구 의정안〉이 이 세상에 공포되지 못하고 학부의 미결서류 속에 깊이 묻히고 말았다. 그 이유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학부대신의 경질이다. 국문연구소를 개설하고 그 일을 계속해 온 이재곤은 〈보고서〉가 제출되기 2개월 전 즉 1909년 10월 21일에 사임하고 李容植이 새로 취임하였는데, 이용직은 친일파로서 이완용내각에 발탁된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가 국문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한 처리를 일부러 천연시켰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부국장 윤치오가 〈국문연구 의정안〉의 내용에 불만이 있었다는 설도 있으나 이것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는 국문연구소의 위원장이었으나 그의 견해는 어느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다.

국문연구소는 1909년 12월 28일자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국문연구소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보고서〉의 처리가 천연되어 그 이름만은 그냥 남아 있다가 1910년 8월, 나라의 이름과 함께 이 연구소의 이름도 없어지고 말았다.

(5) 〈국문연구 의정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문연구소는 1909년에 들어 그 전에 10회에 걸쳐 14문제에 대해서 의결했던 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학부대신에게 보고하였다. 이것이 바로 〈국문연구 의정안〉으로 국문연구소 위원들의 협동적 노력의 결정일 뿐 아니라 개화기의 국문연구의 총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였다.

1909년에 들어 국문연구소에서는 그 전의 14제를 10제로 요약했었다. 그리하여 <의정안>과 최종 <연구안>은 모두 10題로 되었다.

이 <의정안>을 완성하는 것이 국문연구소의 목표였으며 이것은 정부에 의하여 공포될 것으로 예견되었던 것이나, 마침내 공포되지 않고 말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조차도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것은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국문연구 의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간단한 평을 붙이기로 한다.

가. 국문의 연원과 자체 급 발음의 연혁

淵源, 字體, 發音을 나누어 논하였다. 연원에 대해서는 단군시대부터 우리나라의 문자를 개관한 것인데 그 서술이 간결하고 오늘날 보아도 거의 흠잡을 데가 없다. 단군시대에는 문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 뒤 한자가 들어와 한문으로 글을 쓰게 되어 ‘言文一致’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고 신라 시대에 한자를 이용하여 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이 생겼으나, 사용하기 어려운 흠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國文을 造作할 사상의 胚胎”라고 본 것은 탁견이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즉위 25년(1443)에 창제하고 《訓民正音》이란 책을 짓게 하여 28년(1446)에 반포하였다고 했다. 훈민정음보다 앞서 우리 나라에 古代文字가 있었다 하나 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인한 것도 매우 타당한 견해라고 하겠다.

자체에 대해서는 먼저 “字體는 상형이니 古篆을 倣造한지라”라고 하여 鄭麟趾의 訓民正音序에 나오는 “象形而字倣古篆”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종래 훈민정음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었고 국문연구소에서도 이능화는 梵字 起源說을 주장했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지극히 온당한 태도였다.⁶⁾ 자체의 변천으로는 初聲字 중에 ‘ㅇ, ㆁ, ㆆ’이 없어진 사실, ‘ㄱ

6) 훈민정음의 制字 원리가 분명히 밝혀진 것은 1940년 《訓民正音》 원본이 발견되어 그 <解例 制字解>에 자세한 설명이 있음이 드러난 뒤의 일이다. 國文研究所 위원들이 원본을 보지 않고 鄭麟趾의 “象形而字倣古篆”을 인정한 것은 매우 온당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ㄷ ㅁ ㅂ ㅅ가 ‘ㄷ ㅁ ㅂ ㅅ’, ‘ㅅ ㅅ ㅅ ㅅ’과 혼동된 사실, ‘ㅎ’은 ‘ㅎ’과 혼동되어 없어진 사실, 순경음 4자는 우리 나라 발음에는 없는 것이어서 폐지된 사실, 終聲은 훈민정음에 “終聲復用初聲”이라 해서 초성 17자를 다 종성에 쓴 예가 있으나 뒤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자만 종성에 쓰게 된 사실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ㅇ’, ‘..’ 등의 새 글자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널리 사용되지 않았음을 덧붙였다. 자체의 연혁이란 곧 문자체계의 역사를 의미했는데, 이 부분의 서술이 충분치 못한 것은 개화기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옛 문헌들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었다.

발음의 연혁에 대해서 먼저 훈민정음에서는 각 글자의 발음을 한자로 표시했으나 《訓蒙字會》에 와서 ‘ㄱ’을 ‘其役’(기역), ‘ㅏ’를 ‘阿’(아) 등으로 이름을 지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초성 중 ‘ㅇ, ㅁ, △, ㅇ’은 당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듯하지만 대체로 비슷하여 ‘ㅇ’만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개화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된 중성의 ‘..’에 대해서는 그 발음이 ‘一’자와 비슷하여 국어의 음으로서의 발음하기 어려워 지금은 그릇되어 ‘ㅏ’자와 발음이 같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에 관한 주시경의 학설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초성 중 ㅇ, ㅁ, △, ㅇ, ㅁ, ㅁ, ㅁ, ㅁ 八字 복용의 당부

먼저 ‘ㅇ’자는 지금에 사용되는 글자요 ‘ㅇ’이 없어진 글자이니, ‘ㅇ’을 ‘ㅇ’으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위의 제1제에서도 엿볼 수 있었던 것으로, 魚允迪 위원의 주장을 따른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릇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본래는 ‘ㅇ’, ‘ㅇ’ 두 글자가 있었다가 이들이 하나로 합하였는데 없어진 것은 ‘ㅇ’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2제는 본래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옳았을 것이다.

이들 여덟 글자는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 모든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ㅇ, ㅁ, △’은 위의 제1제에서 말한 바요 ‘ㅇ’자는 ‘ㅁ’의 變體요 ‘ㅁ, ㅁ, ㅁ, ㅁ’ 등 순경음자들은 국어음에는 없으니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다. 초성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6자 병서의 서법 일정

이것은 된소리의 표기에 관한 문제인데, 이 同字 並書가 다수표로 결정되었다. 李能和・周時經 등이 이것을 주장하고 池錫永은 그의 <新訂國文>대로 된시옷을 주장했으며, 어윤적은 어느 쪽이나 다 같이 써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동자 병서가 타당한 이유로서는 이것이 音理에도 맞을 뿐 아니라 혼민정음 제자의 본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다만 ‘ㅎ’은 국어음에 ‘ㅎ’만 써도 되므로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라. 중성 중 ‘·’자 폐지 ‘=’자 창제의 당부

이것은 지석영의 <新訂國文>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된 것이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의 본음이 ‘ㅣ’와 ‘ㅡ’의 합음이라는 주시경의 학설에 의거하여 지석영은 ‘·’가 일반적으로 ‘ㅏ’와 혼동되어 사용되므로 이것은 폐하고 그 대신 ‘ㅣ ㅡ’ 합음자로 새로 ‘=’를 만든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 <議定案>에서는 ‘·’의 본음이 ‘ㅡㅣ’라는 明證이 없으므로 ‘=’자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하였다. 그리고 ‘·’는 ‘ㅏ’와 혼동되었으나 “制字하신 本義와 行用하던 慣例로도” 폐지함이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로써 <신정국문>의 규정은 국문연구소에서 완전히 부정된 셈이다. 지석영의 주장에 찬동한 것은 李敏應뿐이었고 李能和・宋綺用・尹敦求는 반대하였고 魚允迪・周時經・權輔相은 ‘=’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되 ‘·’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 마지막 주장이 더욱 온당한 것인데, 아마도 위원장이 이능화 등의 의견을 택하여 그렇게 된 듯하다.

마. 중성의 ㄷ, ㅌ 2자 용법 급 ㅈ, ㅊ, ㅋ, ㅌ, ㅍ, ㅎ 6자도 중성에 통용 당부

이것은 주시경이 가장 강력히 주장하여 제기된 문제인 바, 그의 주장대로 ‘ㄷ’뿐 아니라 ‘ㅈ, ㅊ, ㅋ, ㅌ, ㅍ, ㅎ’을 모두 받침에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다. 이 규정에 전적으로 찬성한 이는 어윤적・주시경・권보상・윤돈구였고 반대한 이는 이능화・지석영・이민웅이었다.

이들 받침을 써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저 위에서 말한 주시경의 이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바. 자모의 7음과 청탁의 구별 여하

이것은 음성학의 문제로서 자음의 새로운 분류를 결정한 것이다. 예전에는 ‘발음의 작용되는 부분’으로 牙·舌·脣·齒·喉·半舌·半齒의 7음을 구별하였고, ‘발음의 輕重 淺深’으로 全淸·次淸·全濁 등을 구별했으나 이것을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기로 정한 것이다. 7음을 5음으로 한 것은 동양 음운학의 전통적인 체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청탁의 구별에 있어서는 격음을 새로 마련하고 ‘ㄴ, ㄹ, ㅇ, ㄷ’ 등 불청불탁을 全淸에 넣음으로써 전통적 체계를 깨뜨리고 말았다. 이 체계에서는 아직 서양 음성학의 영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牙 音	舌 音	脣 音	齒 音	喉 音
淸 音	ㅇ ㄱ	ㄴ ㄷ ㄹ	ㅍ ㅂ	ㅅ ㅈ	ㅎ
激 音	ㅋ	ㅌ	ㅊ	ㅊ	
獨 音	ㄲ	ㄸ	ㅃ	ㅆ ㅊ	

사. 4성표의 용부 급 국어음의 고저법

四聲(平·上·去·入)은 국어음에 없으므로 사성표는 쓸 필요가 없고 ‘高低長短音’만 구별하여 장음은 글자의 ‘左肩’에 1점을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지식영의 〈新訂國文〉에서 제기된 것인데, 그의 주장 중에서 한자음에 관한 것은 채택되지 않고, 국어음에 관한 것만 채택된 것이다. 단 〈신정국문〉에는 장음의 경우 1점을 ‘右肩’에 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左肩’에 가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철자법은 장음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자 이외에 기호를 쓴다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음을 표시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도 적지 않다. 이 문제는 아직도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 자모의 음독 일정

이것은 한글 자모의 명칭을 새로 결정한 것이다. 전통적인 명칭은 ‘기역’, ‘디글’, ‘시읏’ 등에서 제2음절의 불규칙성이 있었으나 이들을 ‘기윅’, ‘디을’,

‘시옷’으로 고쳐 모두 ‘으’로 규칙화하였다.

ㅇ 이응 ㄱ 기읍 ㄴ 니은 ㄷ 디을 ㄹ 리을 ㅁ 미읍 ㅂ 비읍
 ㅅ 시읏 ㅈ 지읏 ㅎ 히읏 ㅋ 키읍 ㅌ 티을 ㅊ 피읏 ㅊ 치읏
 ㅍ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ㅡ 으 ㅣ 이 ㆍ 으

이것은 어운적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ㅇ’을 모든 자음의 맨 앞에 놓은 것도 그의 주장이었다(이 주장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될 것이다).

자. 자순 행순의 일정

자모의 순서는 훈민정음 이후 여러 책에 서로 같지 않으나 초성은 牙舌脣齒喉의 순서로, 그리고 청음을 먼저 놓고 격음을 나중에 놓으며, 중성은 《訓蒙字會》의 것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을 보았다.

ㅇ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ㅋ ㅌ ㅊ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

行順이라 함은 ‘가가거겨…’로 시작하는 문자표의 순서를 말하는 것인데 중성으로 버리를 삼고 초성의 순서대로 벌여 놓기로 결정하였다.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으
 가가거겨고교구규기ㄱ 以下 倣此

차. 철자법

“綴字法은 訓民正音 例義대로 仍舊 綴用함이 可하도다”라고 간략하게 규정하였다. 당시의 학자들은 철자법이란 말을 초성·중성·종성을 결합하는 방법이란 뜻으로 이해했던 것 같다.

이상 〈國文研究 議定案〉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훌륭한 문자체계와 철자법의 통일안이라고 평해서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고 믿는다. ‘ㆍ’를 그냥 쓰기로 한 것을 제외한다면 〈국문연구 의정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체계와 철자법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문자체계와 철자법은 1933년 朝鮮語學會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수립된 것인데 이미 이보다 4만세기 전에 국문연구소가 그와 같은 원리에 도달했던 것은 지극히 중요한 史實이 아닐 수 없다.

(6) 각 위원의 연구안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문연구소의 〈보고서〉는 〈국문연구 의정안〉과 마지막까지 남은 8위원의 최종 연구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안은 〈의정안〉의 내용을 밑받침하는 기초 자료로서 〈의정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뿐 아니라, 그 당시의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연구 업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이 연구안은 ‘國文研究’라는 표제 밑에 4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개화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 학자들의 연구가 자못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4책을 검토해 보면, 처음 3책은 어윤적·이능화·주시경 3인의 안이요 나머지 1책이 권보상을 비롯한 5인의 안이다. 처음 3인의 연구안은 분량도 많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훌륭하여 이 시대의 국문연구를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다.

여기서 각 위원의 연구안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어서 피하기로 하고 각 연구안의 현저한 특징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가. 어윤적

학부 학무국장으로서 국문연구소 위원을 겸하고 있었던 어윤적의 학문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역사에 있었으나⁷⁾ 국문에 대해서도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위의 〈국문연구 의정안〉에 대한 검토에서 우리는 그의 학설이 가장 많이 반영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국문연구소에 있어서의 그의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국문에 대한 자못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실증적 태도로 그의 학설을 세웠으므로 당시의 학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단이 적었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 단군시대에 문자가 있었다고 하나 이것은 ‘推想的 空論’에

7) 魚允迪은 《東史年表》(초판 1915, 재판 1935)의 편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불과하다고 배척한 점, 훈민정음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훈민정음 서문에서 鄭麟趾가 말한 “象形而字倣古篆”이 가장 믿을 만하며 이 古篆은 곧 梵字라고 하기도 하나 고전은 어디까지나 한자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이 그의 건실한 학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한 어윤적의 견해는 《訓民正音》원본이 발견되기 이전에 있어서 가장 정곡을 얻은 것으로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는 무릇 문자구조의 원리에는 ‘象形’과 ‘演義’가 있는데 훈민정음에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ㅇ’, ‘ㄱ’ 등을 만든 것은 상형이요, ‘ㄱ’에 획을 더하여 ‘ㅋ’, ‘ㆁ’을 병서하여 ‘ㄷ’을 만든 것은 연의라고 하였다. 연의란 말은 그가 생각했던 것이지만, 위의 설명은 《訓民正音解例》(制字解)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ㅇ’이 모든 초성의 근본이요, ‘ㆍ’가 모든 중성의 근본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ㆍ’를 중성의 근본이라고 한 것은 《훈민정음해례》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이며, 초성에 대해서까지 ‘ㅇ’을 근본이라고 본 것은 지나친 것이었다. 그는 훈민정음의 制字를 태극과 음양의 이치로 설명하려 했던 것이다.

制字上 ‘ㆍ’를 중성의 근본이라고 보는 그의 관점은 ‘ㆍ’가 모든 모음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는 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ㆍ’는 다른 모음들과 혼돈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ㆍ’가 ‘ㅣ’의 합음이라는 주시경의 설을 부정하였으나 ‘ㆍ’자를 폐지하자는 점에 있어서는 주시경과 의견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

한편 모든 초성을 중성으로도 써야 한다는 주장에 있어서도 어윤적은 주시경과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는 명사, 형용사, 동사 등에 ‘承接詞’(조사 또는 어미)가 붙는 경우 이들의 표기를 항상 고정되게 하려면 ‘ㅈ, ㅊ, ㅋ, ㅌ, ㅍ, ㅎ’과 같은 받침도 써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시경의 설명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주시경의 설명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될 것이다). 그의 설명 방식이 오히려 그 뒤 우리 나라에서 일반화된 설명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나. 이능화

범어학교장으로 다방면에 관심을 보여 많은 저서를 낸 이능화는 세계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으며 국문연구소의 일에 대단한 열성을 보였었다.⁸⁾

그는 훈민정음의 梵字 기원설을 강력히 주장하여 훈민정음과 범자에서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을 예를 들기까지 하였다. 이 주장은 국문연구소 위원들의 차동을 얻지 못하였다.

한편 그는 ‘·’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력히 내세웠다. 그는 ‘·’는 본래 ‘卜’와 혼동되었으나 외국에도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같은 예가 있으므로 ‘·’를 없앨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이유를 들었으나 수긍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이 주장이 관철되어 <국문연구 의정서>에서 ‘·’를 없애지 않기로 한 것은 옥의 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5제에 대한 이흥화의 주장은 매우 독특하였다. 그는 ① ‘ㄱ ㄴ ㄷ ㄹ ㅂ ㅅ ㅇ’은 ‘常用初終聲字’로, ②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은 ‘活用初終聲字’로, ③ ‘ㅇ ㆁ ㅅ ㅆ ㅍ ㅍ ㅎ’ 등은 ‘備考初終聲字’로 나누었다. 확실하지는 않으나 ①은 제한 없이 언제나 쓴다고 한 것을 보면 ②에는 어떤 제한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밖에도 그의 주장에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다. 주시경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주시경이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활약했음은 그의 연구안이 양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주시경의 저서들이 전하기는 하지만, 그의 연구안은 국문에 관한 그의 연구를 종합한 것으로 그의 학문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의 연구안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그가 훈민정음의 制字 원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다(그의 다른 저서들에서도 이것을 볼 수 없다). 아마도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결론을 얻지 못했던 것 같다.

이미 저 위에서 지척한 것처럼 국문에 대한 주시경의 주장은 ‘·’의 본래의 발음은 ‘ㅣ’와 ‘ㅡ’의 합음으로서 이것은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것과, 된소

8) 李能和의 저서로는 《朝鮮佛教通史》, 《朝鮮基督教及外交史》, 《朝鮮女俗考》, 《朝鮮巫俗考》, 《朝鮮解語花史》 등이 있다.

리는 ‘ㄱ ㄷ ㅂ ㅅ ㅈ’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과 받침으로 ‘ㄷ ㅈ ㅊ ㅋ ㅌ ㄲ’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 연구안에서 우리는 주시경의 새로운 받침 이론에 관한 가장 세련된 서술을 볼 수 있다. 모든 음은 ‘本音’ 외에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臨時的 音’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 말이든지 그 본음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즉 ‘찾고’에서 ‘ㅈ’이 제대로 발음되지 않으나 이것은 ‘임시의 자연한 音理’에 의한 것이며 이 경우 本音은 엄연히 ‘ㅈ’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ㄷ ㅈ ㅊ ㅋ ㅌ ㄲ’ 등의 받침을 쓰고 있는 것은 주로 주시경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그의 ‘본음’, ‘임시의 음’에 관한 이론이 그 뒤 우리 학계에서 잊혀지고 만 것은 애석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어의 음운체계에 대한 매우 깊은 통찰에서 우러난 것으로 이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더라면 현대 국어학의 빛나는 업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라. 권보상

국문연구소 위원에 임명될 때 내부 서기관이었다는 것 이외에 權輔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런데 그는 국문연구소 개설 이래 충실한 위원으로 일했으며 그의 연구안은 23장의 짧은 것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읽어 보면 매우 주목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문의 기원에 대해서 그는 ‘古篆’의 뜻을 매우 넓게 해석하였다. 즉 漢文, 梵字, 蒙文 등을 모방하고 이들을 일괄하여 고전이라고 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모방이란 것은 ‘考察的 感念’을 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훈민정음은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독창적 문자체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성 ‘·’에 관한 권보상의 이론은 주로 어운적과 이능화의 주장을 반박한 것인데, 매우 날카로운 데가 있다. 이 이론에서 우리는 그가 언어와 문자의 구별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한다. 국어가 있는 뒤에 이것을 표기하기 위하여 국문이 생겼는데, ‘·’가 중성의 처음이라고 해서 이것이 모음의 근본이라 하는 것은 잘못임을 그는 밝혔다.

받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이론상으로는 모든 초성을 종성에 쓰는 것이 옳음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그가 특히 문법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한 점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타당한 것이다.

된소리 표기를 된시옷으로 하자는 것을 빼고는, 권보상은 대체로 주시경과의 의견이 일치했으나, 그는 이론적, 실제적으로 독자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특히 그가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언어와 문자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구안의 다른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언어는 변화한다는 사실과 문자 표기는 보수성을 지닌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다른 학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마. 송기용

宋綺用은 국문연구소 창설 이래 한 번도 연구안 제출을 게을리한 일이 없는 충실한 위원이었으나 독창적인 학설은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된소리 표기에 대해서는 주시경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고 ‘·’를 없애는 것도 옳지 않고 ‘=’를 만드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한 것은 이능화의 학설을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 표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주시경의 의견을 따랐으나 “隨機應用하자”고 한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바. 지석영

〈신정국문〉 당시의 지석영의 의견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임을 특징으로 하여 어윤적이나 주시경과는 거의 모든 문제에서 대립을 보였다. 그의 주장은 〈의정안〉에서 완전히 무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된소리 표기로 된시옷을 주장하면서, 지석영이 ‘ㅅㄱ’의 ‘ㅅ’은 본래 ‘ㅅ’이 아니라 한문에서 같은 글자를 생략할 때 쓰는 부호 ‘<’라고 한 것은 기발하지만 옳지 않은 착상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 만든 ‘=’자에 대해서도 그의 설명은 너무나 빈약했다. 심지어 그는 그 용법이나 용례를 하나도 들지 않고 있다.

사. 이민용

학부 서기관으로 나중에 국문연구소 간사와 위원을 겸했으며 국문연구소 〈보고서〉도 李敏應의 글씨로 되어 있는데, 정작 그의 연구안은 제4제와 제5제 두 문제에 관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지식영의 의견을 추종하고 있다.

아. 이돈구

특별히 독창적이라고 할 만한 의견이 없다. 그는 주시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그리하여 된소리 표기에 ‘ㄱ ㄷ ㅂ ㅅ ㅈ’을 쓸 것과 모든 초성을 종성으로 쓰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에 대해서는 폐지하자는 설이 매우 타당하나 좀더 연구하여 본음을 밝힐 것을 주장하였다.

4) 문법의 연구

(1) 서양인의 연구

우리 나라에 독특하고도 完美한 알파벳 文字(한글)가 있음이 서구학계에 처음 알려진 것은 18세기 말의 일이었다. 이것은 하나의 경이였다. 그리하여 이 문자의 체계와 계통을 밝히려는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19세기의 20년대와 30년대에 아벨레뮈사(Jean Pierre Abel-Rémusat), 클라플로트(Heinrich Julius Klaproth)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어 서구 문자학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처럼 한글에 국한되었던 서구인들의 관심이 우리 국어에 미친 것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일이었다. 이 연구는 주로 선교사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서양 선교사들은 새로운 언어에 접했을 때 그 문법서와 사전을 편찬하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문법(grammar)이란, 서양에서 발달한 학문이다. 그리하여 국어 문법이 처음 서양인들에 의해서 씌어졌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처음으로 국어의 문법에 관한 저술을 한 사람은 영국 선교사 로스(John Ross)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선교사의 입국을 금했으므로 그는 만주에 있으

먼서 국어를 공부하여 1877년에 《朝鮮語初歩》(Corean Primer)를 중국 上海에서 발행하였다. 이것은 국어 회화책인데 그 첫머리에 국어의 음운과 문법에 관한 설명이 보인다. 그 뒤 그는 이 책을 수정하여 《朝鮮語法》(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1882)를 내었다. 국어의 음운과 문법에 관한 설명이 훨씬 자세해졌음이 주목된다. 로스와 함께 만주에 있었던 선교사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도 《朝鮮語論》(Notes on the Corean Language, 1879)를 내었다. 이들의 책은 주로 평안도 방언을 기록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아마도 만주에서 주로 평안도 사람들로부터 국어를 배운 듯하다. 이 책들은 그 내용이 잘되고 못되고는 고사하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평안도 방언을 전해 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성경을 국어로 번역하였는데 이 역시 평안도 방언으로 되어 있어 좋은 자료가 된다.

1881년 파리 外邦宣敎會 소속으로 우리 나라에 파견된 불란서 선교사들이 편찬한 《朝鮮語文典》(Grammaire Coréenne par les Missio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이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출판되었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문법연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책으로 그 뒤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책은 서양 문법의 틀에 국어를 맞추는 것이어서 국어의 특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가령 이 책은 국어에 아홉 품사를 설정했는데 그 중에는 관사, 전치사까지 들어 있다. 이것은 서양의 문법 체계를 국어에 그대로 적용한 데서 온 것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계절, 十干, 十二支, 方位, 親族關係의 명칭 등을 들고 맨 끝에 각종 회화의 실례를 들고 자세한 설명을 한 것과 짧은 이야기 10여 편의 원문과 번역을 싣고 있다. 이것은 이 책이 순수한 학문적 필요보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 씌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영국 외교관으로 1884년에서 1892년까지 仁川 부영사를 지낸 스코트(James Scott)는 1887년에 《언문말책》(En-moun mal Ch'aik ·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을 저술하였다. 제1편은 언문의 발음, 품사의 설명이요, 제2편은 회화 연습으로 되어 있다. 스코트는 《英韓辭典》(English-Corean Dictionary, 1891)의 편자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 元杜尤)의 《韓英文法》(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이 1889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제1편 문법, 제2편 영어와 국어의 對譯으로 되어 있다. 이 역시 실용을 위주로 한 책임은 위에서 말한 책들과 다름이 없다. 내용에 있어서 품사 분류에 관사, 전치사가 없어지고 그 대신 후치사(postposition)가 등장한 것은 위에서 말한 불란서 선교사들의 문법보다 한걸음 발전한 것이라고 하겠다. 후치사란 체언에 붙는 토를 가리킨 것이다.

캐나다인 선교사로 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뿐 아니라 우리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몇 권의 저서를 남긴 게일(J. S. Gale, 奇一)이 1893년에 낸 《辭課指南》(Korean Grammatical Forms)은 국어 용언의 활용어미를 실례로 들어 설명한 책이다. 이것은 서양인이 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용언 어미라는 점에 착안하여 집필한 것으로, 국어의 용언 어미 264종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그 자료만으로도 훌륭한 업적이 되는 것이다.

이상 19세기에 있어서의 서양인들의 한국어 연구, 특히 문법에 관한 저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뒤에 말할 바와 같이 우리 나라 학자들의 문법 연구는 188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문법책이 간행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서의 일이었다. 여기서 우리 나라 학자들의 연구가 이들 서양인들의 손에 간행된 문법책들의 영향을 얼마만큼 받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이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서양 선교사들의 국어문법에 관한 저술이 19세기에 매우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아주 적었다는 점이다. 위에 말한 책들의 개정판을 제외하면 1923년에 간행된 에카르트(P. A. Eckardt)의 《朝鮮語 交際文典》(Koreanische Konversations 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Gesprächen)과 1939년에 간행된 핀랜드의 알타이어학자 람스테트(G. J. Ramstedt)의 《한국어 문법》(A Korean Grammar)을 들 수 있을 뿐이다.

(2) 유길준의 《대한문전》

우리 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문법에 관심을 가져 문법책을 저술한 사람은

兪吉潛이었다. 그 자신의 말(1909년에 간행된 《大韓文典》의 緒言)에 의하면 그가 처음 국어문법의 초고를 쓴 것은 1881년 일본에 유학했을 무렵이었다고 한다. 그는 그 뒤 여덟 번이나 원고를 고쳐 썼다고 한다. 이 초고 중에서 《朝鮮文典》이란 이름이 붙은 두 책이 지금 전하고 있다.

이 필사본 중의 하나에는 “光武 八年 六月”(1904)이란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역시 《朝鮮文典》이란 이름의 油印本이 있는데 그 끝에 1906년 5월에 이 책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보다 앞서 되었음이 확실하다. 이것이 1907년에 《少年韓半島》란 잡지에 연재되었다.⁹⁾ 이 유길준의 문법이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은 융희 3년(1909)이었다. 이것은 《大韓文典》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융희 2년(1908)에 崔光玉의 저서로 《대한문전》이 간행된 것이 있다. 이것은 유길준의 《대한문전》보다도 오히려 1년이 앞서는 것으로, 종래 우리 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문법책이라고 일컬어져 온 것이다. 최광옥은 당시에 널리 알려진 애국지사요 기독교 신자로 황해도에 학교를 세워 민중교육에 힘썼으며, 大成學校 교장을 지낸 일도 있는데 그의 이 책의 내용은 위에 말한 유길준의 《조선문전》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이다. 그리고 유길준도 그의 《대한문전》 서언에서 자기의 제4차 원고본이 세상에 흘러나가 간행되었다는 뜻의 말을 하여, 최광옥의 《대한문전》이 자기의 원고본에 의한 것임을 비친 바 있다.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유길준이 1881년 일본에 유학했을 때 그의 국어 문법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문법의 기본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는 당시 일본에서 간행된 일본어 문법을 그의 국어 문법의 모델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 뒤 미국에도 유학했으나 그의 문법에서 영어문법의 직접적 영향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도 국어의 구조가 일본어와 비슷하고 영어와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유길준은 1896년부터 1907년에 이르기까지 12년 동안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했는데 이 동안에 그의 문법책이 완성된 것으로 추측되므로, 사실상 그의 《대

9) 여기에는 저자의 이름이 없다. 저자 兪吉潛이 일본에 망명중이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문전》은 전후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체류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유길준의 국어문법 연구가 일본어 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우선 책 이름으로 ‘文典’이란 말을 쓴 것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일본에서 나온 일본어 문법책들은 다 그 이름에 ‘문전’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유길준이 처음 유학시에 참고한 것은 나카네(中根淑)의 《日本文典》(1876)이었고 나중 망명시에 그의 원고를 고칠 때 주로 참고한 것은 그 무렵에 간행되어 널리 읽힌 오쓰키(大槻文彦)의 《廣日本文典》(1897)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밖에도 그의 《대한문전》에는 당시 일본에서 간행된 몇몇 문법책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당시의 일본어 문법 연구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유학에서 문법에 대한 관심이 싹텄던 유길준이 19세기 말엽 미국에 유학하면서 언어학과 영어 문법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의 《서유견문》에 보면 제13편 ‘學業하는 條目’에 ‘言語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주로 실용적인 외국어의 학습 내지 연구로 이해한 것 같다. 다만 “各國의 言語를 比較하여 그 根本의 異同을 考究함이라”고 한 끝 구절은 그가 비교언어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대한문전》은 우리 나라 문법연구의 초창기로서, 모방의 단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상 유길준의 모델이 된 일본어 문법들 자체도 모방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초창기에 있어서는 모방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길준이 여덟 번이나 원고를 고쳐 썼다는 것은 그의 노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유길준은 우리 나라 최초의 문법가라는 명예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의 《대한문전》은 그 뒤의 문법가들에게 이렇다할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의 문법은 주시경의 그것에 압도당하고 만 것이다.

(3) 주시경의 《국어문법》

주시경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國語文法》을 쓰기 시작한 것은 1893

년이요 이것을 일단 완성한 것은 그의 나이 겨우 23세 되는 1898년이라고 한다. 이 기간은 그의 培材學堂 학생 시절에 해당한다.

우리는 아직도 주시경이 어디서 언제 문법에 관한 지식을 얻었으며 어떻게 그처럼 젊은 나이에 그의 문법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문법이란 학문이 새로 도입된 초창기에 국어의 특수성을 살린 문법체계를 수립했다는 것은 확실히 하나의 기적이요 신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저서의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이 신비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 자신이 쓴 기록에 의하면 그는 17세 때에 “英文의 子母音を 解하고 轉하여 國文字의 자모로 解할새 모음의 分合됨을 연구”(《國語文典音學》)하였다 한다. 이것은 그의 국어연구가 영어의 지식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의 학문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영어·중국어·일본어의 문법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국어문법》에서 품사의 이름에 대하여 註를 단 속에 “근일 日本과 支那에서 漢字로 문법에 쓰이는 명칭이 있으나…”라고 한 것에 그 일단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어문법》의 방침을 밝힌 《이 온 글의 잡이》에서 그가 한 다음말은 지극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글은 今世界에 두루 쓰이는 文法으로 옷들을 삼아 꿈임이라. 그러나 우리 말에 맞게 하노라 함이라.

이것은 그의 문법연구의 기본 태도를 천명한 것이다. ‘今世界에 두루 쓰이는 文法’이란 말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문법이란 뜻으로 해석된다(주시경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것은 영어·일본어·중국어의 문법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외국어의 문법을 그대로 모방하려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우리 말에 맞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것이 주시경의 문법을 독창적으로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길준은 줄곧 ‘文典’이란 말을 썼는데, 주시경은 줄곧 ‘文法’이란 말을 쓴 것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역시 《국어문법》의 《이

은 글의 잡이》에 “이 글은 광무 이년 무술에 다 만들었던 것을 이제 얼마큼 덜고 더함인데 이름을 한자로 국어문법이라 함은 그 때의 이름대로 함이라”라고 되어 있다. 이로 보아 1898년에 이미 이 책의 이름은 《국어문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이 ‘문법’이란 말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책들을 찾아 보면 우선 저 위에서 말한 언더우드(H. G. Underwood)의 책의 內題인 《韓英文法》을 들 수 있고, 일본에서 20세기 벽두부터 문법이란 말이 널리 사용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연대로 미루어 보거나, 주시경이 언더우드를 잘 알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언더우드의 책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주시경의 문법에 관한 저서로 최초로 출판된 것은 《대한국어문법》이다. (표지에는 《國文講義》라 되어 있다) 이것은 그가 서울 尙洞靑年學院에서 가르친 교재로서 간행되었다(1906). 그런데 이 책은, 그 발문에도 있는 것처럼, 음운에 관한 부분뿐이다. 그의 《국어문법》 첫머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점 1908년에 간행된 그의 《國語文典音學》과 성격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는 《국어문법》을 간행하기 전에 두 차례나 그가 말하는 ‘音學’에 관한 저술을 낸 것이다. 그의 《국어문법》이 간행된 것은 1910년 4월이었다(이 책의 再版이 《朝鮮語文法》이란 이름으로 1911년에 간행되었다).

《국어문법》의 특징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그 문법 술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순수한 국어 요소를 소재로 해서 ‘임’, ‘긔’, ‘엇’과 같은 新語들을 만들어 썼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학술용어란 한자로 만들든 국어로 만들든 정의를 내려야 하기는 일반인데, 국어문법에 국어를 쓰는 것이 옳은 일이며, 한자로 지으면 오히려 그 뜻으로만 해석하려는 폐단이 있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쓰는 술어들은 국어에 적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시경의 식견이 얼마나 높은 데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는 맹목적인 국수주의자가 아니었다.

《국어문법》 전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독창성이다. 그도 역시 외국어 문법 책 또는 외국인이 쓴 국어문법 책을 참고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위에서도 인용했지만 그 자신 “이 글은 금세기에 두루 쓰이는 문법으로 웃음을 삼아 꿈임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끝이어 “그러하나 우리 나라 말에 맞게

하노라 함이라”고 한 것이 주시경의 문법연구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그의 문법체계에서는 앞에 말한 유길준이나 뒤에 말할 金熙祥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외국문법의 영향 관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시경은 국어에 9품사를 두었는데 그 중에 주목되는 것은 ‘언’, ‘겻’, ‘잇’, ‘꿋’이다. ‘언’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관형사(매김씨)라고 하는 것으로 《국어문법》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먹다, 먹고’, ‘회다, 회고’에서 ‘먹’, ‘회’만을 움(동사), 엇(형용사)이라 하고 ‘다’는 꿋, ‘고’는 잇이라고 했던 것이다. ‘겻’이란 ‘사람이’, ‘소름’의 ‘이·를’ 등을 말한다. 말하자면 그의 문법적 특징은 체언과 토,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나누어 별개의 단어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시경의 《국어문법》은 우리 나라 문법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유길준의 《대한문전》보다도 그의 《국어문법》이 더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어문법》의 내용이 매우 독창적이며, 그것을 가르치는 주시경의 지성에 많은 젊은이들이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4) 어윤적의 연구

국문연구소 위원이었던 어윤적은 문법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의 최종 〈研究案〉에 문법에 관련된 것이 보인다. 즉 제5제(종성의 ㄷㅌ 2자 용법 및 ㅈㅊㅋㅌㅍㅎ 6자도 종성에 통용 당부)에 관한 부분에서 그는 언어 구성에 있어서의 중요 재료는 명사, 형용사, 동사의 3종이지만 承接詞가 없으면 활용을 못하나니, 이 넷을 문자로 일정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제5제에서 제기된 문자들을 모두 받침으로 사용해야 이러한 일정한 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즉 ‘붓은’, ‘젓은’으로 써야지 ‘부슨’, ‘저즌’으로 써서는 ‘붓’, ‘젓’, ‘은’의 표기가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맞춤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것과 조급도 다름이 없다.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어윤적은 동사, 형용사는 어간만으로 보고 어미를 독립된 품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주시경의 견해와 일치한다.

승접사란 어운적의 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이름이다.

(5)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

1909년에 金熙祥의 《初等國語語典》이란 책이 간행되었다. 그 뒤 그는 이것을 개정하여 1911년에 《朝鮮語典》을 내었고 다시 1927년에는 《울이글틀》이란 책을 간행하였다. 이로 보아 그가 매우 열성적인 문법 연구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희상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울이글틀》의 서문에 의하면 그는 배재학당 출신이요 나중에 개성 好壽敦女學校에서 교편을 잡은 일이 있었다.

이 《울이글틀》의 서문은 그의 국어문법 연구의 내력과 태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는 1901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전일에 배운 영어문법을 복습하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여러 번 읽어 보다가 우리말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영어 문법 번역을 기초로 하여 국어문법을 엮어 보려 했으나 어려움을 느끼다가 우리말에 관계되는 서적을 읽어서 좋은 참고를 얻어 《초등국어어전》을 지었다고 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김희상은 영어문법의 번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 문법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도 관계대명사를 설정한 것과 ‘높은, 붉은, 적은, 많은, 오는, 가는, 이, 그, 저, 무슨’ 등을 형용사라고 한 것은 현저한 예라고 하겠다. 활용되는 단어와 되지 않는 단어를 구별하지 않고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말을 모두 형용사라고 한 것은 영어 문법의 형용사를 본뜬 것이다.

그러나 그의 문법에도 국어의 특수성을 드러내려고 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 가령 품사를 7품사로 하고 그 하나로 토를 설정했는데 이것은 주시경의 문법에서 것, 잇, 곳이라고 세 품사로 다루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나서 오늘날의 문법에서 말하는 조사와 용언의 어미 등으로 토를 다시 분류하였다.

이상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처음 10년간에 있어서 우리 나라 학자들이

거둔 국어문법 연구의 중요한 업적을 더듬어 보았다. 이 때는 문법이란 학문이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온 초창기였으니 외국문법의 모방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미 이 때에 국어문법 체계의 특수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5) 주시경의 국어 연구

위의 서술에서 우리는 주시경의 국어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해 왔다. 여기서 그것을 종합하여 볼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주시경은 이른바 개화기를 대표하는 국어학자였고, 그 뒤의 국어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앞에 쓴 것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그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서 여기에 종합적으로 논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

주시경(호 한헌생)은 1876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망국의 한을 겪은 지 5년째 되던 1914년에 세상을 떠났다. 38년 7개월의 짧은 일생이었다.

그가 서울로 올라온 것은 12세 되던 해였다고 하지만, 그 당시의 새로운 학문에 접하게 된 것은 18세 되던 1893년이였다. 그의 이력서에 의하면 이해에 배재학당의 강사인 朴世陽·鄭寅德에게 산술과 만국지지 등을 배웠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國語文典音學》) 이보다 한 해 앞서 17세 되던 해에 英文 萬國地誌를 학습하면서 영문의 자음과 모음을 알게 되어 그 지식으로 국문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 이미 ‘·’가 ‘|—’의 합음이라는 학설을 세웠다고 한다. 여기에는 1년의 착오가 있는 듯한데, 그의 이력서가 옳은 것으로 본다면, 이 학설을 세운 것은 그가 배재학당에 입학하던 해요 또 갑오경장이 있었던 해였다. 그 뒤 1900년까지 그의 교육은 주로 배재학당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는 학생이면서 이미 사회인이요 지사로 인정을 받아 1896년 독립신문사의 일을 보게 되었고 1897년에는 독립협회 위원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그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학자였다. 독립신문사의 일을 보게 되자 곧 그는 신문사 안에 國文同式會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은 국문의 연구 단체로서

는 최초의 것이었다. 그는 이 회에서 ‘·’에 관한 자기의 결론(‘·’는 본래 ‘1
一’의 함음이라는 것과 이것은 폐지해야 한다는 것)과 받침에 관한 새로운 원리
(‘ㄷ ㅌ ㅊ ㅋ ㆁ’과 ‘ㄱ ㅋ ㆁ ㄷ ㅌ ㅊ ㅋ ㆁ’ 등을 써야 한다는 것)를 주장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너무나 시대에 앞선 것이어서 동조자
가 없었다. 한편 그는 이 무렵에 《국어문법》을 집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898년에 이것을 일단 완성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나이 23세 되던 해의
일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어·국문을 연구하는 학자요 교육자로서의 그의 면모가 뚜렷해졌다. 그는 서울 안의 어느 학교에서나 거의 자청하다시피 하여 가르쳤으니, 낮뿐 아니라 밤에는 야학, 일요일이나 방학에는 강습소를 열어 국어·국문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였다. 그는 이 방면의 연구 단체라면 빠진 일이 없었다. 그 중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활약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그는 저술에도 큰 힘을 기울였으니, 그 중에서도 《국어문법》은 그의 필생의 저작이었다. 그의 첫 저작인 《대한국어문법》(1906)과 둘째 저작인 《국어문전음학》(1908), 그리고 마지막 저작인 《말의 소리》(1914)는 모두 《국어문법》중의 ‘音學’(요즈음 술어로는 음운론)이 독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의 국문연구소 최종 연구안도 국문에 관한 훌륭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朝鮮光文會(1910년 창설)에서 국어사전을 편찬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사전은 완성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 나라에서 맨처음 있는 국어사전 편찬이었다.

주시경의 학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큰 감명을 받는 것은 그 조속성과 독창성이다. 조속성은 그 당시의 다른 학자들에게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 아니지만, 독창성은 견줄 만한 예를 찾기 어렵다. 배재학당에서 배웠다고 하지만, 그의 국어 연구는 거의 독학이었는데, 그가 국어 연구에서도 달한 높은 수준의 독창성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저서들을 볼 때, 주시경은 국어 음운연구에 시종 깊은 관심을 가졌었고 이에 큰 자부심을 가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말의 소리》은 국어 음운론에 관한 하나의 기념비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포함한 그의 여러 저술에 나타난 음운 이론은, ‘ㄱ ㅌ ㅍ ㅊ’은 ‘ㄱ ㄷ ㅂ ㅈ’과 ‘ㅎ’

의 섞임이라고 본 것을 비롯하여, 독창적인 견해로 가득차 있다. 그 중에서도 ‘本音’과 ‘臨時的 音’의 이론은 크게 주목된다. 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서 다시 설명하면, ‘꽃이’ 할 때에는 ‘ㅈ’이 제대로 발음되지만, ‘꽃만’ 할 때에는 ‘ㄴ’으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임시의 음’이요 ‘본음’은 어디까지나 ‘ㅈ’이니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이 ‘본음’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이 이론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계승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주시경 자신이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음운 이론이었으며 또 오늘날 새로이 평가되어야 할 중요한 이론이다. 이 ‘본음’과 ‘임시의 음’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미국 언어학에서 발달된 생성음운론에서 말하는 기저표시(underlying representation)와 음성표시(phonetic representation)에 각각 일치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것이었던가를 보여 준다.

한편 그의 《국어문법》이 국어의 문법체계를 자못 독창적으로 파악했음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여기서 일일이 말하러 하지 않지만, 그의 마지막 저작인 《말의 소리》에 보이는 ‘ㄷ씨’에 대해서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이 유감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1930년대 이래 현대 언어학에서 발달해 온 형태소(morpheme)란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착상에 그치고 이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음이 흠이라고 하겠다.

주시경의 정성어린 국어 연구와 그 보급을 위한 헌신적 노력의 밑받침이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그의 학문과 교육은 애국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애국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말해 주는 한 일화가 있다. 그는 배재학당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데, 1906년 崔益鉉追悼會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력침략보다 정신침략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날로 大倭敎로 개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망국의 비운을 막을 수 없는 형세 속에서 그의 焦悶은 날로 커갔다. 특히 105인사건으로 동지들이 많이 투옥된 뒤로는 더욱 그랬다. 그는 결국 이 초민 속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다.

〈李基文〉

3. 한국사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학이 근대적 학문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실학 시대부터 계승되어 온 내재적인 전통과 개항 이후 수용된 서양의 학문에 일정하게 자극을 받은 한국사학은 19세기 말의 계몽적인 사학의 단계를 넘어서서 근대적인 학문으로 성립되어 갔다. 20세기 초의 ‘근대민족주의사학’이 바로 한국사 분야에서 근대적인 학문으로 성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느 시대나 역사학은 溫故知新의 방법론을 학문적으로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서, 중국과 한국에서 특히 발전하였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게 되는 학문으로서는 역사학만한 것이 없었다.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역사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이면서 모든 학문의 역사적 근거를 찾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특히 동양의 학문에서는 經學과 함께 반드시 역사학이 있었고, 사상적인 체계와 논리를 구성함에 역사적인 근거가 필요하였으므로 역사학은 경학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 존재하였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역사학이 경학과 사상(철학)에서 분화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중세까지 넓은 의미의 인문학에 포괄되어 있으면서 인문학 전반과 분화되지 않은 역사학은 인문학에서 자신을 분화시켜 자신의 개성적인 성격을 독립시킴으로써 근대적인 학문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역사학이 독자적인 존재는 아니었지만, 미분화된 인문학의 기초적인 요소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에 역사학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과 학문을 논할 때뿐만 아니라 經世를 논할 때에도 빠지 못할 분야였다. 태평한 시대에는 역사학이 지배자의 통치자료로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사서의 명칭에 《資治通鑑》이라는 말은 이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배자가 통치를 위해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 것, 그것은 바로 역사학의 교훈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맞게 되면 역사학은 통치자료로서의

위치에서만 머물 수가 없게 된다. 민족이나 국가의 자기존재를 재확인하고 격동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진로를 거기에서 찾아내야 했다. 역사학이 특히 변화의 시기에 요청되면서 자기 시대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자기 시대가 잠들려고 할 때 역사학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를 대상화하여 現存과 관련시켰고 이 작업을 통해 그 대상의 미래를 예시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 점은 한말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말 한국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역사학은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근대 역사학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어떤 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아직 해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국사의 시대 구분에서 보면 한말 서세동점의 시기가 근대의 시작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시대 역사의식의 산물이자 지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역사서술이 왜 거의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특히 이 시기는 학과로서의 실학이 사라지고 개화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그 시기에 있었을 실학기와 개화기를 교량해 주는 역사학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점도 밝혀야 할 문제다.

그런데 실학기에서 개화기에 이르는 이 시기에는 역사서술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대의 공백을 메워 주는 역사학은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때에 있었을 역사서술은 어떤 인물, 어떤 저술에 의해 면면되어 왔는가 하는 점도 문제시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증인들에 의한 역사서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점도 이 시대 역사학을 다루면서 풀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또 한말 본격적인 개화기에 이르면 근대 역사학은 근대학교의 시작과 더불어 역사 교과서가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 통사적인 역사 서술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가 주었을 파장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로 이 시기의 역사학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로는 개항기를 맞으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외국인들의 한국사 연구와 그것이 한국인들의 한국사 연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종래 이 점에 대해서도 연구가

없지 않았으나 당시의 문헌 자체를 분석하는 과정을 결들인 연구는 없었다고 본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것에 치중하였는데, 그 밖의 나라에서 간행된, 특히 서양언어로 쓰여진 한국사 서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보여진다. 당시 한국을 소개하는 서양 서적 중에는 한국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한국의 역사를 다루는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한국의 역사 자체를 다루는 서적은 그리 흔치 않았다. 앞으로 개항기의 한국사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의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외국의 역사학이 한국사 연구에 끼친 영향도 적지 않았던 만큼 그 점도 이 시대 역사학을 다루면서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여기에는 서양의 역사소개가 영향을 끼친 경우도 있지만, 역사이론서나 사회과학의 이론 자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개항·개화기에서 애국계몽기로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본격적인 한국사 연구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역사서술에서 포착할 수 있는 역사정신과 역사연구 방법론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화기에는 근대 학교의 설립에 따라 역사 교과서가 정부에 의해 먼저 간행되었다. 그런 역사교과서는 외국, 특히 일본의 한국사 연구에 일정하게 영향을 이미 받고 있어서 민족의 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를 안고 있었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일본의 한국사 연구는 근대학문이라는 명분으로 이 때 이미 고대 일본의 한국지배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내비치고 있었는데, 한국의 역사교과서 저자들은 이런 침략적 사관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들의 주장을 용납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던 시기에 이르게 되면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나라의 독립을 수호하는 것과 상통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역사의식에 기초한 국권수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무렵이면 이제 역사는 곧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인식되어 식자들의 역사연구가 민족의 생존권 수호의 차원으로 승화되었다. 국망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통사가 나오지 못했지만, 민족주의 역사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역사의식이 변화하는 한말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말의 역사학은 19세기 후반 외세의 침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좌표를

민족사의 흐름 속에 정확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데다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에너지원을 민족사에서 탐색하려는 일련의 작업과 연관된다고 할 것이다. 민족적 에너지원의 발굴은 민족사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데서 가능하였다. 이것이 바로 자기 역사를 새롭게 점검해야 하는 작업으로 연결되었다. 민족사에서 자신의 현재를 재확인하는 작업은 자신을 개방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 속에서 진행되었다. 때문에 폐쇄적으로 자기를 탐색하던 그 이전과는 사뭇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과거라는 사실을 담는 역사탐구의 작업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과 같이, 이제 새로운 부대를 필요로 하였다. 한국의 근대 역사학이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방법론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려는 당대 지성의 자세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실학시대에서 개항기로 넘어오는 시기에서부터 한국의 역사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며 그것이 한말에 이르러 민족주의 역사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말 일제 초기의 민족주의 역사학이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그 성격은 어떠한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근대 학문으로서의 한국사 연구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업적들이 생산되었다. 실학시대 이후에 나타난 역사학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있었는가 하면, 시대별·분야별 연구도 돋보였다. 그 동안의 업적들에 유의하면서 여기서는 실학 이후의 근대한국사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고 한말 일제강점 초기의 민족주의 사학이 성립되는 데까지를 하한으로 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근대 한국사 인식의 추이

(1) 실학시대 후기에서 개항기의 역사학

실학시대에는 한국의 중세 역사학이 전환기를 맞았다. 私撰史書들이 풍부하게 간행된 것은 물론 그 내용도 다양하고 특색들이 있었다. 봉당으로 인해

정치와 학문이 서로 의존관계에 있었고, 당색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관점과 한국사의 인식체계 등이 상이했다. 역사서술의 형식적인 측면이 달라졌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¹⁾

먼저 실학시대에 나타난 역사서술 형식의 뚜렷한 점은 綱目體 형식의 역사서술이었다. 물론 編年體나 紀事本末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때 특히 많이 나타난 것은 주자와 그의 제자 趙師淵이 《資治通鑑綱目》에서 시도한 강목체 서술이었다. 강목체 서술 형식은 실학시대에 유행처럼 나타난 역사서술의 형태였다고 할 것이다.

강목체 형식과 함께 실학시대 역사학의 특징의 하나는 사론으로서의 正統論의 등장이라 할 것이다. 정통론 사론은 특히 李瀾과 安鼎福으로 계통지어지는 남인계의 학풍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익이 馬韓正統論을 제시한 이래 남인계를 중심으로 정통론사학이 한때 풍미했다. 정통론사학은 특히 한국의 고대사를 체계화함에, 종전에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계통화하고 삼한을 위만조선에 부설해 왔던 고대사 인식체계에 변화를 가하여, 단군조선→기자조선→삼한으로 정통을 삼고 위만조선을 삼한에 대한 僭僞의 국가로 정리해 버렸다. 정통론자들은 삼한을 역사적인 정통국가로 설정하고 위만조선을 참위로 규정하는 데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역사는 정통과 참위를 준별하는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자 강목의 필법을 추종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통론 사학을 가능하게 했던 華夷觀에 변화가 오고 北伐論이 北學論으로 바뀌는 추세 속에서, 새로운 역사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柳得恭의 《渤海考》를 비롯하여 韓致彥(韓鎭書)의 《海東繹史》, 李肯翊의 《燃藜室記述》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역사의식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역사의식은 정통론 사학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사 연구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발해사 연구가 한국사의 범주에서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李種微의 《東史》에서는 한국고대사의 체계가 단군의 주류가 부여·고구려로 계승된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19세기 전반기, 학파로서의 실학이 끝나는 것은 세도정치의 등장과 무관하

1) 이 점에 관해서는 이만열, <17~18세기 史書와 古代史認識>(《韓國史研究》10, 1974).

지 않다. 세도정치의 등장으로 학문의 폐쇄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실학시대에 꽃피었던 역사의식은 위축되었고 역사서술 또한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한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엽에는 과거의 전통성을 잇는 몇몇 역사 서술과 특수 분야에 관한 역사서술을 대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특별히 주목되는 바가 있다.

19세기 전반기에 관심을 끈 사서로서는 丁若鏞의 《疆域考》와 앞에서 언급한 한치윤(한진서)의 《해동역사》로 알려져 있다. 이들 사서들은 18세기의 《동사강목》 등의 고증학적인 측면을 심화, 발전시키는 한편 정통론 사학을 차원 높게 극복하고 있었다. 이들 사서들을 이어서 역시 19세기 전반기에 몇몇 사서들이 나타났다. 그 중 洪敬謨(1774~1851)의 《大東掌攷》의 〈歷代考〉와 《叢史》의 〈東史辨疑〉는 19세기 전반기에 저술된 것이며, 그의 조부 洪良浩로부터 이어받은 家學적 전통 위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역대고〉는 李萬運의 《紀年兒覽》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이지만, 군주편향적 시각이 강화되었다거나 정통론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 등은 차이가 있다. 〈동사변의〉는 사실 및 지리의 고증이 돋보이고 있는데, 그는 특히 한국 상고사에서 “이설이 분분한 28항의 문제들을 여러 문헌자료들을 비교하면서 밀도있게 고증”하였다.²⁾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李源益(1792~1854)도 《東史約》이라는 역사서술을 남겼다. 그는 서술원칙의 하나로 정통론을 고수하면서,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정통이 箕子를 거쳐 신라 문무왕 9년 이후와 고려 태조 19년 이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삼한·삼국시대는 無統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통론에 입각한 한국사 체계를 단군(정통)→기자(정통)→위만(僭國)→삼한(無統)→삼국(無統)→신라 문무왕 9년 이후(정통)→고려 태조 19년 이후(정통)→조선(정통)으로 정리했던 것이다. 이원익의 《동사약》은 강목체적인 서술체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고증사학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어서 강목법 사서와 고증적 사서의 중간적 형태에 속하는 사서로 지적되기도 한다.³⁾

2) 이 점에 관해서는 한영우, 〈19세기 전반기 洪敬謨의 歷史敍述〉(《韓國民族主義歷史學》, 一潮閣, 1994).

3) 이원익의 《동사약》에 대해서는 한영우, 〈19세기 중엽 李源益의 歷史敍述〉(위의 책) 참조.

19세기 중엽에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서술이 싹트기도 하였다. 종래의 사서들이 대부분 양반 지식들이나 관료들에 의해 쓰여졌던 것과는 달리, 이 무렵에 이르면 향리나 서얼, 일반 시정인들의 전기류에 해당하는 책들이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향리의 역사를 쓴 李震興의 《掾曹龜鑑》(1846)을 비롯하여, 서얼들의 역사를 쓴 《葵史》(1858), 중인의 전기를 쓴 趙熙龍의 《壺山外記》(1844) 등이 있는데, 이들은 “양반 아닌 중간신분층을 주제로 하는 사회사적 저술이었고, 자기가 소속된 신분층의 사회적 진출을 주장하는 현실개혁의 의도에서 저술된 것이었고, 또 전기를 중요시하는 인간 중심의 서술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료를 발굴 이용하고 있었다”고 지적된다.⁴⁾ 그 밖에 19세기 중엽에 간행된 사서로서는 劉在健의 《里鄉見聞錄》(1862), 李慶民의 《熙朝軼事》(1866), 朴周鍾의 《東國通志》(地理考, 1868) 등이 있다.

실학에서 개화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역사서술로서는 앞서 말한 몇 개의 사서와 함께 安鍾和(1860~1924)를 빼 놓을 수 없다.⁵⁾ 그는 개항 직후인 1878년에 《東史聚要》를 완성하여 1904년에 《東史節要》라는 이름으로 간행하였는데 이는 고려 말까지의 인물 800여 명을 다룬 것이다. 그는 이 저술에서 ‘근대화에 필요한 인간상의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였으며, 단군 중심의 고대사체계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주의사학이 성립될 수 있는 중요한 교량적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중화는 이어서 1909년에는 《國朝人物志》를 간행하였는데, 조선시대의 인물 3,000명을 다룬 이 책은 일제의 한국병탄 계획이 노골화하던 시절, ‘조국사상이 油然而然하게 자생’토록 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국난을 이겨낸 전쟁영웅들과 왕조체제의 개혁을 모색한 조선후기 실학자들, 그리고 신분제의 질곡을 깨면서 새로운 개화세력으로 성장해 가던 위향인들, 그리고 도가나 처사를 자처하면서 이단사상

4) 이 시기의 서얼과 향리 및 중인의 역사를 다룬 《葵史》와 《掾曹龜鑑》 및 《壺山外記》에 대해서는 이기백 교수의 〈19世紀 韓國史學의 새 樣相〉(《韓沽勵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1) 참조.

5) 최기영, 〈안중화〉(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비평사, 1994).

韓永愚, 〈開化期 安鍾和의 歷史敘述〉(《韓國文化》 8, 1987).

——, 앞의 책, 1994.

을 키워 온 인사들을 부각”시켰다고 지적되고 있다.⁶⁾ 따라서 인물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정리한 안중화는 이런 일련의 역사편찬 작업에서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을 역사적 과제’로 ‘전통적인 성리학적 역사관을 부분적으로 벗어나’ 근대적 역사관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다.⁷⁾ 그러나 그의 책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출간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서 언급될 사서편찬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2) 개화기 계몽주의 역사학

한국의 역사학에서 근대적인 성격을 부분적으로나마 띠고 나타나는 것은 갑오개혁 이후다. 개항 이래 외세의 침투를 경험하면서 내재적으로 수용, 축적하기 시작한 근대적인 의식—사회진화론·자강주의, 민족주의·제국주의 등—은 현실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한편 한말 지식인들은 현실적으로 부닥친 위기의 타개 능력을 요구한 역사와 전통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말하자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문화능력에서 그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의식과의 관련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이 때 역사의식은 단순히 과거를 조망하는 것만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이 나라의 미래를 전망하는 지혜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예언자적인 성격도 갖고 있었다. 한말 지식인들이 한국사에 새롭게 접근하여 연구하고 가르치려는 자세를 갖게 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뤄졌던 것이다. 그랬던 만큼 이 시대의 역사학은 일정하게 역사연구의 방법과 서술면에서 전근대적인 것과 구별되는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게 된다.

한국에서 근대적 성격을 가진 역사학의 일차적인 특징은, 그 이전 봉건시대의 역사학과는 달리, 역사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모색하는 한편 개성적인 민족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동양의 고·중세 사학이 經史一體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 때의 역사학은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독립해 가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의 독자성은 먼저

6) 한영우, 위의 책, 338쪽.

7) 최기영, 앞의 글, 34쪽.

경·사의 미분화에서 오는 역사학의 비독자적인 학문영역을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분리시키는 데서 시작되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과거 한국의 역사를 中華史의 일부 혹은 그 부용으로 취급해 오던 데서 이제 한국사를 중화사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인 자기위치를 갖게 하는 것을 의미했다.

일반적으로 근대 역사학은 역사인식 면에서는 사실의 실증을 위해 객관적인 사료비판과 논증을 중요시하고 인과관계를 분석적·종합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규명하며,⁸⁾ 동양적인 과거지향적·순환론적인 역사이해를 강조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역사인식을 강조하는 편이다. 역사주체를 인식함에도, 고·중세의 역사학이 영웅과 지배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서 근대역사학은 민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기에 근대역사학은 왕실이나 지배자 대신 민중을 강조하였다. 또 근대역사학은 이데올로기적 역사인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한말 국사학도 조선 후기에 성행했던 정통론과 명분론 등 이념을 강조하던 교조주의적 역사서술을 점차 탈피하고,⁹⁾ 과학적인 역사서술에 접근해 갔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소략하긴 하지만 근대적인 성격을 띠면서 먼저 나타나는 역사책은 갑오개혁 이후 학부에서 간행한 교과서류다.¹⁰⁾ 1895년에 各級學校

8) 근대 역사학의 효시로 불리는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는 비판적 방법을 통하여 실증을 강조하고 철학적 역사를 극복하였으며, 역사주의적 방법론적 근거라 할 '본래 일어난 그대로(wie es eigentlich gewesen)'라는 명제 아래 역사의 개체와 그 발전을 시간적 과정에서 사실대로 탐구하려고 하였다(차하순, 《현대의 역사사상》, 탐구당, 1994, 22쪽).

9) 趙東杰, 《現代韓國史學史》(나남출판, 1998), 64쪽.

10) 이 점과 관련,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金麗柒, 〈開化期國史教科書를 통해서 본 歷史認識(Ⅰ)(Ⅱ)—歷史輯略을 중심으로—〉(《史學志》 14·16, 檀國大, 1982).

김홍수, 〈한말 역사교육 및 교과서에 관한 연구〉(《역사교육》 29, 역사교육연구회, 1981).

——, 〈한말의 국사교과서 편찬〉(《역사교육》 33, 역사교육연구회, 1983).

이경란, 〈구한말 국사교과서의 물주체성과 제국주의〉(《역사비평》 15, 역사비평사, 1991).

이연복, 〈우리나라 근대역사교육사연구—구한국의 역사교육을 중심으로—〉(《서울교육대학논문집》 11, 서울교육대, 1978).

조 광, 〈개항기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한국사》 23, 한길사, 1994).

조동걸, 〈한말 사서와 그의 계몽주의적 허실〉 상(《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한

습이 반포되고 서울에서만 壯洞·정동·계동·廟洞 학교가 설립되면서 ‘본국사’가 교육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학부는 국사교과서 편집을 시작하여 1895년에는 《朝鮮歷史》·《朝鮮歷代史略》·《朝鮮略史》를, 1899년에는 《東國歷代史略》·《大韓歷代史略》·《普通教科東國史略》을, 1906년에는 《普通教科大東歷史略》·《新訂東國歷史》·《中等教科東國史略》을, 그리고 1908년 이후 한말에는 《대한력스 상》·《初等本國歷史》와 《초등대한력스》·《初等大韓歷史》·《初等大東歷史》와 《初等本國略史》·《初等本國歷史》·《新撰初等歷史》·《國朝史》를 간행하였다.¹¹⁾

이들 교과서들은 실학정신을 계승하면서 ‘자존적 국가의식’을 바탕으로 ‘부국강병·萬邦對峙·근대주의·보편적 세계사·우승열패’의 개화사상의 역사의식¹²⁾을 담고 있다. 초기에 국한문 혹은 한문으로 쓰여졌던 이들 교과서들은 뒤에 차차 국문을 전용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편년체적 서술을 유지하였으며, 고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때로는 정통론을 고집하는 것도 있어서 근대적 성격과는 거리가 있는 것도 있었다. 근대의 서술에 인색한 것은 당대사 서술에 소홀했다는 측면과 함께 과거회귀적인 역사의식을 엿보게 한다. 고대사에서 중국에 대한 사대의 예를 벗어나지 못한 서술이나 근대의 서술에서 淸으로부터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것은 이 책들이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학부 편찬의 역사책은 당시 학부 편집부에 있던 玄采나 金澤榮 등이 맡았으나 뒷날에는 차차 개인적인 저술로 확대되었다. 1906년에 나온 교과서는

국독립운동사연구회, 1987).

——, 〈한말 사서와 그의 계몽주의적 허실〉 하(《한국학논총》 10,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87;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에 제수록.

홍영백, 〈한말 세계사 관계사서의 내용과 그 한계〉(《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태학사, 1984).

홍이섭, 〈구한말 국사교육과 민족의식〉(《인문과학》 36,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4).

朴杰淳, 《韓國近代史學史研究》(國學資料院, 1998).

11) 한말의 自國史 교과서에 대해서는 조동걸, 위의 글(1987).

朴杰淳, 앞의 책, 27~53쪽 참조.

12) 朴杰淳, 위의 책, 27~32쪽.

‘國民教育會’, 元泳義·柳瑾, 현채 등의 저자들이 썼다. 비록 내용과 형식면에서 어설픈 측면이 있고 그래서 동시대의 민족주의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은 하였지만,¹³⁾ 이들 교과서들은 당시 개화의 풍조를 소화해 가는 과정에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自國史를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케 하는 하나의 가교를 놓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말 자국사의 인식과 연구는 먼저 고전을 복간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개화가 실학사상의 내재적인 발전과 계승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었던 만큼 한말에는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 완당 김정희의 영향이 컸고 그들에 대한 연구열 또한 높았다. 실학자들의 저술이 복간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이 때 《연암집》을 비롯하여 다산의 《목민심서》·《흠흠신서》·《아언각비》 등이 복간되었고, 張志淵은 다산의 《아방강역고》를 증보, 개정하여 《대한강역고》로 편찬하였다. 복간사업은 崔南善이 설립한 朝鮮光文會를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다.¹⁴⁾

한말 안으로는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이 가중되는 시기에 지식인들의 역사의식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외에 자기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기시대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나타났다. 通史類로서 대표적인 것은 崔景煥·鄭喬의 《大東歷史》¹⁵⁾와 金택영의 《歷史輯略》, 현채의 《東國史略》을 들 수 있다. 시대사의 성격을 띤 것으로 한말 자기 시대의 풍운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는 黃玿의 《梅泉野錄》과 개화파 인사로서 독립협회 회원이기도 했던 정교의 《大韓季年史》 등이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개화파 지식인이 편찬한 우리 나라 통사

13) 특히 신채호는 한말의 교과서류를 두고, ‘新史의 體’라고 부르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서술의 편명, 술어를 고치는 정도였기 때문에 “털어놓고 말하자면 韓裝冊을 洋裝冊으로 고침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신채호, 《朝鮮上古史》; 《丹齋申采浩全集》上, 형설출판사, 1977, 61쪽).

14) 조선광문회의의 복간사업에 대해서는 이만열, 《韓國近代歷史學의 理解》(文學과 知性社, 1981), 125~129쪽 참조.

15) 《大東歷史》에 대해서는, 필자는 최경환·정교 두 사람이 써서 1896년경부터 독립협회 회원들의 일종의 교과서로 사용하다가 뒤에 1905년에 출판한 것으로 보았으나, 조동걸 교수는 이 책을 ‘두 사람의 공저’로 보면서도 ‘정교의 《大東歷史》가 따로 있으므로 편의상’ 분리해서 보았다(조동걸, 앞의 글, 1989, 169~175쪽·181쪽. 이만열, 앞의 책, 121쪽 참조).

에 이미 일본의 한국사 연구가 상당 부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동역사》는 신라 박혁거세 9년조에서 일본의 러시아정벌(러일전쟁)을 언급하고 한일관계를 엉뚱하게 ‘同文同種之國’으로 또 ‘脣齒輔車之勢’로 설명하여,¹⁶⁾ 역사인식 및 시대의식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 책이 독립협회의 교과서로 채용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러한 한계는 결국 독립협회의 역사의식과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현재의 《동국사략》이 일본인 하야시(林泰輔)의 《朝鮮史》를 편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다소 수정해서 수용했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너무나 뻔한 것이다.¹⁷⁾ 여기에 다 김택영의 《역사집략》은 하야시의 《조선사》에서처럼 단군의 역사를 佛家の 所出인양 의심한 것이라든지 신공왕후의 신라정복과 任那日本府說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서 이미 같은 시대의 신채호 같은 이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¹⁸⁾

시대사의 성격을 띤 것으로 《매천야록》과 《대한계년사》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전자는 한말 우국시인이며 지리산 밑 구례에서 17년간이나 일본인 침략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국운을 걱정했던 황현이 유교사관의 근간이 되는 통감강목·춘추필법에 기초를 두고 근대사의 현실에도 유의하면서 당대사를 서술했던 것이다. 후자는 황현과는 달리 독립협회 회원으로 회원에게 국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대동력사》를 교열·저술한 적이 있는 정교가 쇠약해 가는 조국을 보면서 침략세력에 대한 항거에 역점을 두고 붓을 들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책에 나타난 두 지식인의 역사의식은 일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⁹⁾

이렇게 근대적인 것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전통과의 괴리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데다가, 후술할 바와 같이, 일제의 식민주의 사학이 밀려오고

16) 《大東歷史》新羅 始祖王 九年 大皇帝陛下光武七(八)年 日本征露國…皆克之 蓋我大韓之與日本爲同文同種之國 壤地相接脣齒輔車之勢…

17) 현재의 《東國史略》에 대해서는 이만열, 앞의 책, 123~124쪽 참조.

18) 신채호, 앞의 책, 57~58쪽 참조. 신채호는 여기서 장지연의 《大韓疆域考》도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19) 한말의 역사인식과 역사의식에 대해서는 鄭昌烈, 〈韓末의 歷史認識〉(《韓國史學史의 研究》한국사연구회편, 을유문화사, 1985), 189~228쪽 참조.

있는 데도 그것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朴殷植과 申采浩 같은 강렬한 역사의식을 가진 역사가를 만났다는 것은 그 시대의 한국의 지성계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자기 시대가 갖는 봉건적인 모순을 의식하는 한편 밖에서부터 밀려드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잘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민족주의 역사학은 이들의 역사의식을 통해 건설되고 있었다.

3) 민족주의 사학의 성립

(1) 일제 식민주의 사학의 침투

일제의 식민주의 사학이란, 일제가 한국을 침략, 강점하고 그것을 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하여 안출한 역사학을 총칭해서 말한다. 여기에는 일제 어용학자들의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국적에 관계없이 일제의 침략 정당화에 가세한 역사학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제 식민주의 사학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된 것이 있지만²⁰⁾, 그것이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성립에 일정하게 자극과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언급한다. 한말·일제하에 성립된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은 식민주의 사학을 비판,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일면을 갖고 있다.

에도(江戸)시대에 시작된 일본의 한국사 연구는 메이지(明治)시대에 이르러 광개토대왕의 비문을 입수하여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본격화되었다. 1883년에 광개토대왕 비문을 입수한 일본의 참모본부는 이 비문을 해독하기 위해 저명한 한학자·역사학자들을 동원, 1889년에 책임자(橫正忠直)의 이름

20) 金容燮, 〈日帝官學者들의 韓國史觀〉(《思想界》, 1963. 2).

——,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敍述〉(《歷史學報》 31, 1966).

洪以燮, 〈植民地の 史觀의 克服〉(《亞細亞》, 1969).

李萬烈, 〈日帝官學者들의 植民主義史觀〉(앞의 책, 1981).

——, 〈19世紀末 日本의 韓國史研究〉(《清日戰爭과 韓日關係》, 韓國史研究會 편, 一潮閣, 1985).

趙東杰, 〈植民史學의 성립과정과 近代史敍述〉(《韓國民族主義의 發展과 獨立運動史研究》, 知識産業社, 1993).

으로 ‘고구려비출토기’를 발표하였다. 이 글은 일본 사학계에 큰 반응을 일으켜 침략주의적인 관점에서 고대 한일관계사를 다루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4세기 말의 광개토왕 무렵부터 倭가 신라·백제를 정복하고 고구려와 대결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야마토(大和)정권을 수립했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이 고구려의 금석문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대일본이 한국에 출병하여 남하하는 고구려의 대군과 투쟁, 한국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은 일제가 추구하는 현실의 대륙정책과 실로 잘 부합되는 것이었다.²¹⁾

이 무렵 참모본부가 아닌 일본의 근대 역사학에서도 한국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877년에 설립된 동경제국대학은 1889년 사학회를 결성하고 그 기관지로서 《史學會雜誌》(1892년에 史學雜誌로 개칭됨)를 간행하면서 근대적 학문연구 방법을 내세워 일본사는 물론 동양사와 그 일부로서 한국사 연구도 진행시켰다. 이렇게 일본의 한국사 연구는 그들의 한국 진출에 발맞춰 대학과 군대에서 각각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의 한국사 연구는, 1894년을 분기점으로 그 전 시기에는 주로 고대사를 중심으로 정치·군사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후에는 근대사에 사회경제적인 관점이 중시되었다. 청일전쟁 전에 그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에는 고대사의 연구가 필요했고, 청일전쟁 후에는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그 계획 실천에 필요한 역사이해가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침략에 필요한 현실적인 역사 연구는 고대사가 아니라 근대사였고, 사회경제사였다.²²⁾ 20세기에 들어서서 일본의 한국사 연구는 뒷날 식민주의 사학의 기본골격의 하나인 소위 停滯性이론이 타율성이론 및 일선동조론의 등장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이론화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다.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을 무시한 정체성이론²³⁾은 1902년 한국을 시찰한 후

21) 旗田巍, 《日本人의 韓國觀》(李基東 譯, 一潮閣, 1985), 126쪽.

22) 1894년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의 한국사 연구의 경향이 변화되고 있는 점과 그 이유에 대해 이만열, 앞의 글(1985)은 당시 발표된 일본인 학자들의 논문과 저서들에 관해서도 언급해 놓고 있다.

23) 이 점에 관해서는 강진철, 〈日帝官學者가 본 韓國史의 停滯性과 그 理論〉(《韓

쿠다(福田德三)가 1903~04년에 〈한국의 경제조직과 경제단위〉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된다.²⁴⁾ 한국의 역사는 수많은 정치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면에서는 발전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체성론의 요지로서, 후쿠다는 이러한 “부패·쇠망의 극치에 달한 (한국의) 민족적 특성을 근저에서 소멸시켜” 일본에 동화시킬 자연적 命運과 의무를 갖는 중대한 사명을 일본이 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은 러일전쟁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는데, 이 점은 바로 일제 어용학자들이 일제의 한국 지배의 정당성을 러일전쟁에 앞서 주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었다.

정체성사관의 연원으로 불려지는 이 논문은 일본의 한국 진출이 식민지적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봉건제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한국을 근대 사회로 발전시켜 주는 데에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뒤 이 이론은 여러 일제 관학자들(河合弘民·山路愛人·喜田貞吉·黒正巖·四方博·森谷克己)에 의해 더욱 발전하여 일제의 한국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으로 되었고 해방 후 오늘날까지 한일관계에서 ‘傳家の 寶刀’처럼 그들의 식민 수탈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되었다.

정체성사관이 등장한 직후에 타율성이론의 모태인 滿鮮史觀이 나타난다.²⁵⁾ 이는 만주사를 중국사에서 분리시켜 조선사와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는 것으로 일제의 중국 침략에 앞서 동양사학자들이 안출한 것이다. 그들은 만주사를 중국사에서 분리시켜 중국이 만주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 논거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만선’이란 말도 러일전쟁 후에 설립한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동경지사 내에 ‘만선역사지리조사실’을 만들고 거기서 ‘만선역사지리보고서’(16책)를 간행하는 데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만선사’는

國史學》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참조.

24) 이 논문은 처음에 《內外論叢》에 게재되었고, 1907년에 《經濟學研究》에 수록하였으며, 다시 改稿하여 1915년판 《經濟學研究》前篇에 수록하였다.

25) 만선사관 및 타율성사관에 대해서는 旗田巍, 〈滿鮮史의 虛像〉(《日本人의 韓國觀》), 188쪽.

李龍範, 〈韓國史의 他律性論 批判〉(《亞細亞》1969년 3월호).

이만열, 앞의 책(1981), 276~279쪽 참조.

그 체계에서부터 한국사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한편 만주에서 일어난 민족·국가들이 한반도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한국사의 타율성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타율성사관은 한국사가 한국인의 자율적인 결단에 의해 전개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으로, 거기에 의하면 한국사는 웅건한 자주독립의 모습은 볼 수 없고 외세에 굴종하는 비겁한 역사뿐이었다. 한국의 역사는 시작에서부터 기자·위만과 같은 외세의 지배를 받았으며, 그 대신 수·당과 대결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그 자웅을 가리던 웅혼한 고구려사는 간 데 없고 왜소하기 짝이 없는 나약한 역사만 남게 되었다. 독립자주의 상징으로 일찍부터 존송되어 온 단군은 신화로서 취급되어 우리 역사의 영역에서 추방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한국이 일제와 같은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한국사를 지배해 온 타율적 역사전개의 당연한 결과로 보았다. 외세의존적인 한국사는 한국인으로 하여금 의타적·사대적인 민족성을 갖게 만들었다는 주장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식민주의 사관의 하나로 등장한 日鮮同祖論은 일선동종론·일한일역론·일선동원론 등으로도 불려지는데, 한마디로 일본과 한국은 같은 조상, 같은 민족, 같은 영토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일제의 한국 강점을 침략이 아니라 동조·동종의 옛 역사로 환원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치되며 따라서 그들의 침략행위를 호도·은폐시키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처음에는 일제의 한국 강점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으나, 3·1운동 이후에는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저해하는 이론으로 둔갑하였다. 나아가 일선동조론은 내선일체·황국신민화의 사상적 기저로서 원용되었고, 일제 말기에는 신사참배나 창씨개명 등의 민족말살책으로 한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극단적 정책으로 이어졌다.

한말·일제 강점기에 안출된 일제 식민주의 사관의 형성·발전과정은 여기서 상론하지 않겠다.²⁶⁾ 다만 식민주의 사관으로 한국의 역사가 크게 훼손당해 민족정신이 파괴되어 갈 때, 여기에 자극을 받아 민족자주성과 국권 회

26) 식민주의사관의 형성·발전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진철·김용섭·이용범·이만열 및 하타다(旗田巍)의 앞의 글들을 참조.

복이 바로 민족사를 되찾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족사 연구를 민족주의운동과 결부시킨 일련의 역사학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근대민족주의 사학이다.

(2) 근대민족주의 사학의 성립

한말·일제하 한국인에 의해서 계몽주의 단계의 역사학이 자신의 정체성을 채 확립하기도 전에 일제의 식민주의 사학이 침투하였다. 한말 계몽주의 사학은 근대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침투하는 식민주의 사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때로 한계가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서 식민주의 사학이 본격적인 준비를 차리고 있을 때, 한국인 역사가들 중에는 식민주의와 근대성을 구분하지도 못한 채 일제 관학자들의 위장술에 그대로 놀아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조선사편수회에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관계하는 이들이나 식민주의 사학의 정체성론 등에 동조하는 이들이 나오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실학시대의 사학이 갖는 실증성과 계몽주의 역사학이 갖는 근대성을 내적으로 수용하여 진전시키는 한편 식민주의 사학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민족주의 의식을 키워간 역사학자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박은식·신채호를 비롯하여 金敎獻(1868~1923)²⁷⁾·李相龍(1858~1932)²⁸⁾·黃義敦(1887~1964)²⁹⁾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역사학적 성향은 강렬한 민족주의 의식에 기초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역사학이 강렬한 민족주의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사상에서 근대성이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단지 이들 중 몇몇 분들에 의해서 근대민족주의 역사학이 태동·발전하였고, 근대역사학이 이념적으로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세계

27) 韓永愚, 〈1910年代 李相龍·金敎獻의 民族主義의 歷史敍述〉(앞의 책, 1994).

28) 尹炳夷, 〈石洲遺稿〉(《韓國近代史料論》, 一潮閣, 1979).

韓永愚, 위의 글.

29) 朴永錫, 〈海園 黃義敦의 民族主義史學〉(《汕雲史學》創刊號, 1985).

沈勝求, 〈해원 황의돈의 역사학연구〉(《北岳論叢》9, 1991).

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황의돈〉(《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창작과비평사, 1994).

학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준을 높였던 것은 사실인만큼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는 근대민족주의 사학과 관련하여 박은식과 신채호만 거론하고자 한다.

한말 일제강점 초기에 이르면 우리 나라의 역사학이 이념면에서나 방법론에서 질적인 고양단계에 이르게 된다. 박은식에 의해 근대민족주의 사학이 태동되고 신채호의 의해 근대민족주의 사학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은식(1859~1925)³⁰⁾은 한말 해서지방에서 ‘朴夫子’라는 명성을 가졌을 정도로 주자학자로서 發身하였던 학자다. 그러나 그가 상경하여 독립협회운동에 참여하고 언론계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급변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주자학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드디어 양명학으로 옮겼다. 뒤에 그가 <왕양명실기>을 쓴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한말 언론·교육·사회운동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때때로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하여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한말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등 신문과 《서북학회월보》·《서우》 등의 잡지에 역사관계 논설과 논문을 발표하여 민중을 깨웠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자 1911년 망명길에 올라 고구려의 고도요 발해의 유적지이기도 한 桓仁縣에서 이듬해 3월 그곳을 떠나기까지 《東明王實記》·《泉蓋蘇文傳》·《明臨答夫傳》 등을 구상 혹은 집필하였다. 이 때 대종교의 尹世復의 집에 우거하였기 때문인지 그의 역사의식에는 단군숭배의 강렬한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1914년에는 상해에서 《安義士重根傳》과 《韓國痛史》를 집필하였고, 《한국통사》는 그 이듬해 상해에서 간행되었다. 1918년에는 러시아령 雙城子에서 《渤海史》·《金史》를 역술하고 《李儁傳》을 저술하였다. 3·1운동 이후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저술하기 시작하여 1920년에 이를 간행하였고 이 무렵에 스스로 完史라고 자부

30) 백암 박은식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이만열, 〈朴殷植의 史學思想〉(《숙대사론》 9, 1976).

——, 〈民族史學〉(《韓國史》 22, 국사편찬위원회, 1978).

——, 〈民族主義史學의 韓國史認識〉(앞의 책, 1981).

愼鏞廈, 《朴殷植의 社會思想研究》(서울대 출판부, 1982).

한 《李忠武舜臣傳》을 저술하였다.

白巖의 역사서술에서 전기류와 고대사에 관한 것도 없지 않지만, 돋보이는 것은 근대사연구다. 그의 《한국통사》는 대원군 이후의 우리 나라가 멸망해가는 과정을 일제의 침략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것이고,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1884년 갑신정변으로부터 3·1운동을 거쳐 1920년의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침략에 대한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정리한 것이다. 이 두 책은 한국의 근대사를 최초로 정리한 것으로 근대사 연구의 고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

그의 저술에 나타난 박은식의 사학에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 주목되는 것은 國魂 중심의 사학 정신이다. 그는 《한국통사》에서 나라의 멸망과정을 썼지만, 그 서언에서 역사를 쓰는 목적이 민족의 정신 즉 神을 보존함에 있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는 가히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가히 멸할 수 없으니, 대개 나라는 ‘形’이나 역사는 ‘신’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형’은 훼손되었다고 하나 ‘신’은 가히 홀로 존재하지 못하겠는가. 이것이 《통사》를 만드는 소이다.

박은식이 《통사》의 서언에서 지적한 ‘신’은 《통사》의 결론에서는 ‘魂’이라 하였는데, 이는 국가를 이끄는 정신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서언에서 말한 ‘형’은 국가를 형성하는 물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魄’을 의미할 것이다.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를 ‘혼’과 ‘백’으로 보았다. 즉 국교·국학·국어·국사를 혼으로, 전곡·차승·성지·선함·기계를 백이라 하였다. 그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요소가 다 필요한 것이라 하고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백’보다는 정신적인 ‘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민족정신인 ‘신’ 또는 ‘혼’이 살아 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야만적인 모습을 벗어나 도덕·논리·정교·법제 등의 국가 제도를 이룩함에는 역사만한 것이 없으며 역사가 존재하는 곳에는 국혼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가 국혼의 소

재치인 국교·국사가 망하지 않는 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그가 역사를 쓰는 목적은 바로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 국혼의 소재치인 자기 역사를 환기시켜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박은식 사학의 특징은 역사서술 체제와 내용에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근세신사’의 체제를 따라 서술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말 사학이 갖고 있는 전근대성을 극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박은식의 사학은 그의 주저인 《통사》·《혈사》의 시대구분이나 가치평가에서 자주적이며 진보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 그가 《혈사》에서 민중을 적극 수용한 것도 그 하나라고 할 것이다.

박은식 사학의 특징은 세째로 영웅사관을 일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교적 그의 역사학의 초기 단계에서 보였던 것으로 일제 강점 초기에 저술한 전기류(천개소문전, 몽배금태조, 김유신전, 안의사중근전, 이준전, 동명왕실기, 명림답부전 및 이충무순신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시기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박은식도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국권회복의 독립투쟁을 위해서는 영웅이 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겐 영웅이란 ‘국가의 간성이요 인민의 사령’이었다. 이러한 영웅대망의 역사관은 뒷날 민중을 역사의 주역이라고 인식하는 역사관으로 서서히 바뀌어가지만, 비록 초기였지만 그가 한때나마 영웅사관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역사학의 한계였다고 생각된다.

국혼 중심의 강력한 민족주의의식에 근거한 박은식의 역사학은 ‘옛것에 근본을 두고 새것에 참여한다’는 ‘舊本新參’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점에서 역사서술의 근대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의 주체를 인식하는 면에서는 ‘영웅’을 상정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등의 한계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박은식의 역사학은 ‘계몽주의 역사학’의 단계에서 ‘근대민족주의 역사학’으로 넘어가는 가교적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근대민족주의 역사학은 丹齋 申采浩(1880~1936)³¹⁾에서 성립된다고

31) 신채호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만열, <단재 신채호의 고대사인식 시고>(《한국사연구》 15, 1977).

——, <민족주의 사학의 한국사인식>(《한국사론》 6, 국사편찬위원회, 1981).

할 것이다. 신채호 역시 주자학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으나 철저하게 주자학을 비판하는 사상가가 되었다. 그는 한말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등 언론계에 종사하며 〈역사와 애국심과의 관계〉 등의 논설로 역사의식을 고취하였다. 그에게는 역사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었다. 그는 또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사상체계로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역사학연구와 연결시켰다. 그는 외세의 침략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애국심의 기초였던 역사와 민족주의를 결합시키는 한편 근대역사학의 이론을 개발함으로써 ‘근대민족주의 역사학’을 성립시켰던 것이다.

그는 먼저 백성에게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영웅들의 전기를 써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06년에 梁啓超의 《伊太利建國三傑傳》을 역술, 간행하고 이태리의 ‘삼걸’과 같은 존재를 우리 역사에서 찾아내기로 하고 1908년부터 《聖雄李舜臣》과 《乙支文德》 그리고 1909년에는 《東國巨傑 崔都統傳》을 썼던 것은 이 때문이다. 영웅 호걸들의 전기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겠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그의 역사관이 영웅사관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그의 역사연구는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讀史新論》을 연재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는 한말 계몽주의 사학이 일제의 소위 근대사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사학 연구의 주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혹독히 비판하는 한편 민족주의 정신에 근거한 한국사의 체계를 모색하여 이같이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일약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글은 최남선이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잡지 《소년》에 전제할 정도로 주목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대사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한 것으로 이후 ‘단재사학’의 중요한 골간이 되었다. 그러나 1910년 나라가 망하자 그는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 그는 만주·러시아·북경·상해 등지로

——, 〈民族史學〉(《韓國史》 22, 1978).

——, 〈丹齋史學의 背景〉(《韓國史學》 1, 정문연, 1980).

——, 〈단재사학의 배경과 구조〉(《창작과비평》 56, 1980).

——, 〈民族主義史學의 韓國史認識〉(앞의 책, 1981).

——, 〈丹齋 申采浩의 역사연구방법론〉(《산운사학》 1, 1985).

——, 《丹齋 申采浩의 歷史學研究》(문학과지성사, 1990).

전전하며 독립운동에 매진하는 한편 고적답사와 국사연구를 계속하였다. 신채호는 1920년 전후하여 《朝鮮上古文化史》와 《朝鮮上古史》·《朝鮮史研究草》 등 그의 주저라고 할 저술을 남기게 되었다.

신채호는 민족운동가 혹은 사회사상가라기보다는³²⁾ 그의 저술이 대부분 역사에 관한 것을 남긴 역사가였다. 특히 그의 업적은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역사가로서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가로서의 그의 위치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근대민족주의 역사학을 성립시켰다는 것이다. 그의 역사학은 근대역사학의 이론과 방법을 심화시키는 한편 근대 민족주의를 역사학과 접목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근대민족주의 역사학을 성립시킨 ‘단재사학’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단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천착했고 그의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는 한국고대사 연구나 그의 근대적인 역사학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사관과 역사학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³³⁾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개요만 언급하고자 한다.

단재의 역사연구는, 현존한 자료에 의하면, 고대사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 이미 거론한 단재의 네 개의 저술(《독사신론》·《조선상고사》·《조선상고문화사》·《조선사연구초》)을 보면 거의 고대사에 관한 것이다. 그의 고대사 인식은 부여·고구려 중심의 전승체계와 전후삼한설을 근간으로하여 한국고대사를 새롭게 체계화한 것을 비롯하여, 단군 인식을 새롭게 정리하고, 한국고대사의 영역을 단군·부여족의 중국지배와 백제의 해외경략 등으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특히 단재는 한사군 문제를 고구려 연대삭감 문제와 결부시켜 중국의 한 나라와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투쟁하는 데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위만조선의 문제와 한사군의 위치문제 그리고 남북 兩樂浪說 등을 새롭게 제기하였으며, 郎家사상 등 단재 이전에는

32) 운동가 혹은 사상가로서의 신채호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신용하, 《申采浩의 社會思想研究》(한길사, 1984).

신일철, 《申采浩의 歷史思想研究》(고려대학교 출판부, 1981).

33) 李萬烈, 《丹齋申采浩의 歷史學研究》(문학과지성사, 1991) 참조.

거의 잊혀지다시피 된 한국의 고대문화를 단편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엮었던 것이다.

역사관의 문제와 관련, 그는 먼저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으로 인식하였다. 그의 《조선상고사》 총론의 일절로 알려진,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라는 구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는 역사를 사회·민족·국가의 제 요소들이 전개하는 활동들의 변증법적인 결과물로 이해하였다. 여기서 그가 ‘투쟁’이란 표현을 쓴 것은, 말 그대로 갈등과 투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역사를 움직여 가는 여러 주체들의 서로간의 관계와 각 주체의 내부에 있는 제 요인들의 동적인 관계를 총칭해서 이른 말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들의 관계에는 갈등과 투쟁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가 역사를 여러 주체들의 동적인 관계를 통해 파악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탁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이렇게 역사를 ‘아’와 ‘비아’의 동적 관계 속에서 발견하려 한 것은 ‘한말·일제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당시 벌어지고 있던 민족간의 갈등관계가 우리 민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역사를 통해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려 한 단재였던 만큼 그는 우리 민족사상 ‘아’와 ‘비아’의 관계에서 가장 자주성을 강하게 나타냈던 고구려를 민족사의 주맥으로 삼고 고구려가 차지했던 만주를 우리 민족사의 주무대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역사를 ‘아’와 ‘비아’의 관계에서 인식하려 한 단재사학에서 특히 강조하려 했던 점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역사연구 방법이 근대적이라는 것은 한국의 역사학을 전근대에서 근대로 진입시킨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는 구사비판, 사료의 선택과 수집, 사료의 비판 등에서 과거의 우리 나라 역사학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론을 구사하고 있다. 신채호는 ‘사실의 고증’을 역사학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임무로 생각하고 그 방법을 여러 모로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가 주장한 고증의 방법은 類證·互證·追證·反證 및 辨證 등이며, 그가 제시한 고증의 방법을 역사연구에 실제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언어학적 방법과 지명이동설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주장

과 이론을 역사연구에 얼마나 충실하게 적용하려 했는가는 문제가 있지만, 그의 이러한 방법론의 제시만으로도 서양의 근대역사학이 추구하던 경지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역사서술론 또한 방법론으로서 매우 독특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그는 역사서술에서 체계성과 종합성 객관성 및 사실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사연구에서 系統과 會通을 구해야 하며 心習을 없애 편견을 제거하며 본색을 존치시켜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단재의 이같은 역사방법론은 이념을 앞세우는 민족주의 사학이 빠지기 쉬운 당위적·교조적인 역사연구와 그 서술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그의 역사연구 방법론은 근대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그의 역사학의 민족주의적 성격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의 역사학이 근대성과 관련되면서 나타난 중요한 점은 역사의 주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다. 그는 한말 한때는 역사의 주체를 영웅으로 상정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각종 영웅전을 집필하였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 역사를 발전시키자면 한두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국민에 의해 가능한 것인데, 그러자면 먼저 국민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민 즉 ‘신국민’에 눈뜬 것이다. 이는 한말의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와 맥락을 같이한다. 나라가 망하자 그는 역사의 주체를 국민에서 민중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때는 그의 반주자학적 의식이 절정에 달한 때였고, <조선혁명선언>을 쓰는 등 무정부주의와 연계하려던 즈음이었다. 하여튼 그가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이 무렵 세계사에서도 역사의 주체를 바로 민중으로 인식하려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채호가 민중을 통해 민족의 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의 민족주의 사상도 민중에 바탕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역사학 또한 민중을 민족의 중심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민족주의 사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단재는 또한 역사연구에서 주자학적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인식하던 때에 그의 역사학에서는 정통론이나 대의

명분론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우리 나라 사학사에서 역사학을 편협한 의리론·정통론과 이데올로기성에서 해방시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역사과학’의 위치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단재였다. 그래서 그의 다음의 말은, 그의 강열한 민족주의 의식과 전혀 상치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국 사학사에서 ‘역사과학’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역사를 위하여 역사를 지으란 것이요, 역사 이외의 무슨 딴 목적을 위하여 지으라는 것이 아니요, 詳言하자면 객관적으로 사회의 유동상태와 거기서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 역사요, 저작자의 목적을 따라 그 사실을 좌우하거나 첨부 혹은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다(申采浩, 《朝鮮上古史》총론(《丹齋申采浩全集》上, 1977), 35쪽).

신채호는 평등성에 기초한 민족을 그의 민족주의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민족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역사학 방법론에서도 근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여 그의 역사학을 근대민족주의 역사학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신채호 이후의 역사학은 ‘반식민사학’의 형태를 띠고 분화의 길을 걷게 된다. 3·1운동으로 축적된 민족적인 역량이 일제의 더욱 교묘한 통치술인 ‘문화통치’를 맞는 한편 세계사적으로는 유물사관을 기초로 한 공산주의가 국내에 유입·확산되자, 이러한 조류와 관련되어 국내에서도 국사연구가 여러 갈래로 분화되면서 넓은 의미의 ‘반식민주의 사학’을 형성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는 흐름과 유물론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사학 그리고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한 소위 ‘실증주의 사학’ 등 크게 세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점에 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설명될 것으로 안다.

〈李萬烈〉